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에 물든 세상 속에서 항상 위함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복음 전파에 전념하는 크리스천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라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9월 29일 (토) 제 170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숨김의 시대에서 되레 삶 드러낸다!

CT, 안전과 보호 이유 프라이버시 숨기는 현대에서 성경적인 접근방식 제안

신용정보 유출 사고들, 8천만 건의 고객 정보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틱사(Cambridge Analytica)에 유출된 사태에 대한 페이스북의 사과, 또는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다는 뉴스, 그리고 관공서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 이런 소식들이 들릴 때면 잠시 알람을 켜 두었다가 이내 꺼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런 문제를 보는 기독교 특유의 시각이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설정이나 감시 카메라에 관해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될까? 우리 목사님은 아니다. 개인정보 설정(privacy settings)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있거나 할까?

사실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서버 해킹에 관해 할 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에 깊은 위안을 주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있다.

팟캐스트(DEVICE and Virtue) 진행자이며,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성공회 교회개혁 조직인 그린하우스 운동(Greenhouse Movement)의 실행 커미셔너인 크리스 리즈웨이(Chris Ridgeway)는, 그 삶의 방식을 상세하게 크리스천리터투레이(CT) 커버스토리를 통해 분명하게 말해준다(Cover Story: Fixing Our Privacy Settings: Why Christians should worry less about protecting their information and think more about giving it away).

바로 그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공동체에 대한 성경적인(그리고 근원적인) 접근방식을 택하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질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디지털 시대를 향해 제대로 증언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지식과 관계, 친밀과 프라이버시에 일으키는 대역전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파티나 커피숍이나 가족모임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대부분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격정된다는 데 바로 공감한다. 확실히 침해당한 적 있고,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하게 말해 달라고 하면, 별다른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안의 편차는 매우 크다. 어느 경영 컨설턴트는 자기 팀은 랩톱 컴퓨터에 장착된 있는 카메라를 테이프로 가리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해커들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인 접근을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미친 작자들입니다.” 그가 말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기도 한다. 미국인들은 직장 내 카메라 설치에 대해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한다. 광고를 수신한다는 조건으로 대학동기들과 무료로 접촉할 수 있게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수용할지 묻는 질문에 2/3가 ‘싫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인 페이스북을 매달 이용하는 활동적 유저는 12억9천만 명이나 된다.

경험의 차이와 기술 불안증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불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모순들 가운데 몇 가지가 바로 우리 앞에 있다. 예를 들어, 10% 할인 쿠폰을 줄 테니 이메일 주소를 건네 달라고 제안을 받으면, 바로 동의한다. 업체들이 아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내 이메일 주소를 알려준다. 이런 변덕스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우리

는 기독교적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 “프라이버시의 신학(theology of privacy)”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프린스턴과 클레어먼트, 풀러와 웨스트민스터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줄줄이 나온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내용은 각 신학교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알람이다. (3면으로 계속)

미래에도 교회공동체는 여전히 부흥한다.

리더십저널, 칼 베이더스 목사의 변화와 혁신으로 복음 전하는 미래 교회 모습 소개

오늘의 교회는 격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에는 살아남지도 못할 지역 교회들과 작은 교단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거나 무슨 문제가 많다는 걸 의미 하진 않는다. 그저 변화하고 있을 뿐이다.

다음 세대의 교회는 현재의 모습 또는 지난 세월 동안의 모습과는 다를 것이다. 나(Karl Vaters)에게는 미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리라는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문제될 건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Why I'm Not Worried About The Future Of The Church Or The Church Of The Future Churches that adapt their methods to advance Jesus' mission will struggle, but survive and thrive).

구 방식 고수하는 한편 혁신적 아이디어 계속 실험 도태와 발전 속에 교회 생존 지속 함께 모여 예배할 장소는 필요해

우리의 예전 방식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방식들은 대부분 비교적 변화가 없었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하는 방식 말이다. 이런 방식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관계를 형성한다. 교회도 이런 관계를 반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만 삶을 살고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수천 마일

떨어져 사는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십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심지어 조부모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사람들은 콘크리트 건물 안에 차려놓은 상점이 아니라 가상공간의 온라인 상점에서 쇼핑을 한다. 이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도시들은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3면으로 계속)



시론 김봉은 목사

2면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7면



인/터뷰 글로리아킴 선교사

16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비전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비전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경 / 성화 액자 / 기증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평상 가격별을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급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은혜한인교회 은혜한인교회

축제복흥성회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 창세기 4:1~7-

일시: 2018. 10. 4(목) ~ 7(주일)

4(목) 7:30pm/5(금) 5:30am, 7:30pm
6(토) 6:00am, 7:30pm
7(주일) 7:30am, 9:20am, 11:30am, 2: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강사: 이경은 목사(순복음 진주 초대교회 담임)

주일예배 | 1부 7:30am | 2부 9:20am | 3부 11:30am | 4부 2pm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OPEN]
예배 | 5:30am, 8pm | 금요성령집회 8:00pm
은혜기도원 TEL: 951-277-1188 / 11985 Indian Truck Trail, CA 92883

한기홍 담임목사 설교방송

우리방송 AM 1230	오전 08:30(주 일)
JSTV 미국지역 CH 668(DISHNET)	오전 10:00(주 일)
CHTV CH 18.7	오후 12:00(주 일)
CGNTV LA 지역	오후 02:30(월요일)
SAN DIEGO RADIO KOREA	오후 04:00(월요일)
CHTV CH 56.9	오전 04:30(화요일)
크리스천 에버그 방송 AM 1650	오전 05:30(수요일)
KCBS CHICAGO AM 1590	오전 10:20(수요일)
CTS 미국(DIREC TV) CH 2092	오후 08:00(수요일)
SACRAMENTO 복음방송 AM 1690	오전 10:00(목요일)
JSTV 미국지역 CH 668	오후 1:30, 5:30, 9:40
CH TV 18.88	오후 10:00(목요일)
미주 복음방송 AM 1190	오전 11:30(금요일)
CTS 미국(DIREC TV) CH 2092	오전 05:30(금요일)
CTS 한국(금)	오전 05:00(한국시간)
AM1540 라디오코리아	오후 04:30(금요일)
YTN FM 100.3	오후 10:00(금요일)
SCA FM	오전 00:00(토요일)
라디오 서울 1650	오전 09:00(토요일)
	오전 00:00(토요일)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6200 www.gracemi.com

하나님 주시는 소망 안에 변화와 새신 있다!

처치리더스.컴, 톰 레이너 목사의 변화 거부하는 교회를 위한 노하우 보도

현재 북미 교회 열 곳 중 아홉 곳이 쇠퇴하거나 주변 지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북미 교회의 90%가 자기 지역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다. 현대 교회에 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웬만한 변화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대대적인 새신이 절실하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다. 많은 교인이 편안한 울타리 안에 안주해 있다. 많은 교인이 변화라면 질색을 한다.

미국 남침례교회 소속 교회성장연구소 라이프웨이의 톰 레이너(Thom S. Rainer) 목사는 수많은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고 5만 개 이상의 교회를 현장 조사한 결과, 교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로드맵을 찾아냈다. 열쇠는 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성경적 기초가 없는 변화는 절대 불가능하다. 열쇠는 급변하는 세상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론과 접근법을 바꾸는 것이다(Who Moved My Pulpit?)

레이너 목사는 강대상 하나조차, 드림 하나조차, 성가대 가운 하나조차 바꾸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교회의 변화를 시도하도록 도전한다.

데릭은 미국 중서부에 약 250명 정도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리디미교회의 담임목사였다. 그는 23년의 목회 경험과 매력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데릭은 점점 회중 가운데 청년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의 설교 스타일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가 시도한 조금 더 대화적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했다. 결국 데릭은 자신의 리더십의 실수로 약 2년간 사역에 주춤하게 됐다고 인정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데릭의 실수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 이단적인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겨우 강대상을 바꾼 것뿐이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야기는 단순하게 리더의 잘못된 판단만이 실패의 요소가 아니다.

물론 변화를 앞두고 목회자나 리더가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교인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

변화 가능성은 로드맵 구축을 통해 실현 가능 기도하고 결과 고려, 소통하며 본보기 보여야

고 격식에서 벗어난 스타일의 설교는 실제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었다. 중장년층도 설교 스타일의 변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눈치였다.

그러던 중 데릭은 8년 내내 사용하던 강대상이 점점 거북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봐도 그 오래된 강대상은 성도들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나무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데릭은 그 강대상을 치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강대상을 대신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데릭은 그것으로 인해 벌어질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예배당에 가득한 술렁거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항의 이메일 쇄도, 많은 항의 전화와 방문, 또 페이스북에 도배된 반대 의견들로 인해 그의 페이스북도 닫아야 했다.

급기야 교인들은 담임목사인 데릭과의 상의 없이 예전 강대상을 다시 가져다 놓게 됐다. 무엇이 이 변화를 향한 시도를 실패로 만들었을까? 과연 교회 내에서 변화는 불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변화를 위한 준비해야 하는 원칙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데릭 자신이 고백하는 이 사건의 교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데릭은 기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고백한다. 전에는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는 아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던 자신의 패턴을 버리고, 이번에는 기도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부터 했다는 것이 가장 먼저된 오류였다고 말한다. 2주간 개인기도가 끝나면 교회에서 중보기도의 날처럼 열정을 가진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곤 했는데, 자신의 리더십의 침묵만 의지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한다.

두 번째로 데릭은 결과에 대한 깊은 고려가 없었던 것이 중요한 실패 요소 중 하나라고 회고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매력만으로 결과들과 반발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 세 번째로,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행동한 불통의 모습이 참 후회스럽다고 고백한다. 자신의 의도와 설교 스타일의 변화에 대해 소통할 생각이나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실수라고 설명한다.

네 번째로, 감정적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말한다. 자신의 결정을 대항한 세력들에게 이 유를 설명하고 사태를 수습하기 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이 사건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었다고 평가한다.

다섯 번째로 긍정적 리더십의 본보기가 필요했다고 회고한다. 데릭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교인들은 그에게서 본보기를 원하고 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먼저 변해야 했었고, 언사와 태도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했음을 실이다. 고집스러운 교인들은 여러 부류가 있지만, 현실을 부인하는 교인들, 권위 의식에 빠진 교인들, '맞'하기 바쁜 교인들, 비판하기 바쁜 교인들, 혼란을 야기하는 교인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리더십이 이끄는 변화에 저항을 한다.

그러나 리더는 이 사람들로 인해 낙심과 걱정으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뜻을 확신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것이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변화의 가능성은 이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15면으로 계속)

<p>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p>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9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유원정</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시론

세 가지 질문



김경운 목사
(백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처럼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필자는 9월 9일 주간에 평소 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간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그 주간에 발생한 특별한 일들에 대하여 생각 하던 중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나는 구원을 받았나?”입니다. 필자의 교회에 의사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75세이며 평소에도 건강하게 보였던 분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조용하게 교회생활을 하였고 단기선교에 여러 번 참여하시며 진실하게 섬기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서 다시 한번 누구나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실감해 보았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확인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살다가 죽음을 한마디로 저주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므로 진지하게 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나?”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입니다. 9월 11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필자는 당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모인 중동선교사대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숙소에서 대회장으로 이동 중 쌍둥이 빌딩에 불이 붙고 높은 빌딩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마치 영화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행했던 두 분 장로님과 함께 두려움을 품고 급히 이란을 빠져나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약 3천명이 그날 그렇게 세상을 떠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9.11 테러사건에 대하여 어떤 기사가 실렸나 뉴스를 검색하던 중 Tania Head(1973년생)라는 여성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78층에서 화상을 입었고 한 남성을 통해 구출되었는데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 부인에게 결혼반지를 전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극적인 생존 스토리를 통해 국민적 영웅이 되었으며 월드트레이드센터(World Trade Center) 생존자 네트워크의 회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를 구출한 남성에 관한 증거도 없고 팔에 있는 화상 흉터도 어떤 시절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사고 당시 뉴욕이 아닌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대학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로 짱박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외식(거짓)을 주의하라는 뜻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며 한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일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는 영국 속담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자라고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몸이 약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한평생 살며 외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회개하면 그 죄를 “도말하겠다”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모두에게 다가올 하늘의 부름 앞에서 진실하면 그가 진정 행복한 신자요 사람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접고 모두 조용히 시간을 내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로서 진실하게 살고 있나?” 자문해 봅시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거든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입니다. 9월 12일부터 주말까지 계속된 허리케인 Florene에 관한 기사를 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처에 난리와 지진과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 재림의 전조적 징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케인으로 인한 폭우에 잠긴 차들에 관한 사진들을 보며 빨리 대피하라는 경고를 무시한 결과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 100만명에게 대피하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경고를 듣고 잘 준비한 사람들은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이니 우리는 마땅히 잘 준비해야 합니다.

(3면으로 계속)

PASTOR APPRECIATION DAY

“매년 10월 둘째 주일은 목회자 감사의 날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매년 10월 둘째 주일은 'Pastor Appreciation Day'입니다.(2018년 올해는 10월 14일)
미국교회들이 1992년부터 '목회자 감사의 날'로 지켜오고 있는 이 행사에 미주한인교회들도 적극 동참합니다. 영적 리더들에 대한 감사는 1년 내내 해도 모자라지만 특별히 '목회자 감사의 날' 이날만이라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솔한 감사, 사랑, 격려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 이 캠페인은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임승쾌)가 펼치고 있습니다

■ 감사의 마음 전달은 이렇게...

1. 전화 또는 텍스트 메시지, 카카오톡을 통해 "감사합니다" 인사하기
2. 감사편지 전하기
3. '이 세상에서 #1 목회자' 등의 문구를 새긴 T-Shirt 선물하기
4. 주일예배 후 목사님을 크게 포옹하기
5. 목회자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알리기
6. 설교하는 모습, 교회행사 등의 사진 및 동영상으로 슬라이드쇼를 제작해 선물하기
7. 목회자 가족을 식사에 초대하기
8. 목회자 취향을 고려한 선물하기
9. 주일 친교시간에 공개적으로 감사인사나 감사메시지를 담은 대형카드, 배너 장식하기
10. 목회자 자녀 베이비시터 해주기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복음방송(로스앤젤레스, 미국)
 크리스천투데이(로스앤젤레스, 미국) |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 아멘넷(뉴욕, 미국) |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앤젤레스, 미국) |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 크리스천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천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저널(사카고, 미국) | 크리스천포스트(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천타임즈(샌프란시스코, 미국) | 크리스천헤럴드(로스앤젤레스, 미국)

숨김의 시대에서 되레 삶 드러낸다

(1면에서 계속)

티머시 조지(비순 신학교)와 마크 D. 로버츠(폴러 신학교) 같은 신학자들이 쓴 논문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짧고 몇 편 안 된다. 미국 복음주의 신학계 밖에는 영국 신학자 에릭 스토다트(Eric Stoddart)가 있다. 런던 중심부 도처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들에 자극을 받은 그는 감시 사회와, 그런 사회가 특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논문을 썼다. 스토다트의 이 논문("Theological Perspectives on a Surveillance Society")이 지금까지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유일한 논문이다.

"성경 윤리학 사전"에 간략한 '프라이버시' 항목이 있다. 이 사전은 갈라디아서 2장 2절, '바울이 문을 닫아걸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난 이야기'와 마가복음 4장 34절, '무리가 떠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신다'를 인용한다. 사무엘상 24장 3절도 있다. 여기서 사울은 (부하 3000명이 있는 동굴 밖이 아니라) 동굴 안에서 뒤를 본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어떤 관점이나 규범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프라이버시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전은 프라이버시에 관한 신학을 결국 포기하고, 이렇게 인정한다.

다고 할 수 있다. "성경에는 현대의 프라이버시 개념에 관한 자료가 빈약하다."

출발점은 아마도 다른 데 있을 것 같다.

성공회 기도서의 "마음의 정결함을 위한 기도(Collect for Purity)"는 전세계 성공회 크리스천들이 매주 드리는 기도문이다. 예레미야 23장 24절과 로마서 2장 16절을 따옴표로 하는 이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나이다."

아마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찾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일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하나님이 물으신다. 타락하기 전에, 저주 받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옷을 입고 숨는다.

우리가 "프라이버시"라 부르는 것은 저주의 일부일까? 의복처럼 어디에나 있고 자연스러운 그런 것에 불

행한 측면이 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방어기제는 죄에 물든 우리의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어떤 불편한 진실이 있다. 우리는 친밀(intimacy)을 갈망하고 또 두려워한다. 알려지고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보다 유일하게 더 강한 것은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다.

이러한 친밀 패러독스(intimacy paradox)는 타락의 결과다. 이런 까닭에 나는 대화가 깊어진다 싶으면 실없이 농담을 꺼내거나,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버럭 화를 내곤 한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낯선 사람이나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화가 치미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디지털 세상에서 프라이버시를 보는 우리의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될 것이다. 가족 저녁식사 자리에서든 우리의 아이폰에서든, 우리는 알려지고 싶은 마음과 숨고 싶은 마음, 포스팅 하고 싶은 마음과 삭제하고 싶은 마음, 창문 가리개를 내리고 싶은 마음과 거리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끊임 없이 갈등하고 타협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실 때, 프라이버시도 없어질까? 바울은 말

한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고전13:12참조).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프라이버시를 거부하는가?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서로에게서 도망하려는 죄로 가득찬 우리의 본성에 비춰볼 때,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the Knower)을 아는 자유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 힘이 있다. 숨기려 하지 않는 우리에게 새 자기 드러냄(self-revelation)의 힘이 있다.

결국 이것이 기독교적 사고가 지식과 관계, 친밀과 프라이버시에 일으키는 대역전이다. 문제는 "어떻게 나를 보호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이다.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곧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간증의 힘을, 특히 그 간증이 매우 정직할 때를 떠올려보라. 눈물이 흐른다. 심자기의 자기 드러냄은 사람들이 고립과 방어와 익명 속에 자신을 감추는 두려움의 공간으로 파고들어간다. 심자기의 자기 드러냄은 약함과 증언으로 우리를 휘감고 있는 죄로 인한 관계적 절망을 받아준다. 세상도 이것을 갈망한다.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목양 헬프 대표

눈물의 강

눈물이 강이 될 수 있어도 강이 눈물 되지는 않는다.

바닷물은 짜지만 짜다고 다 바다는 아니다.

하늘만 푸른 것이 아니라 산도 희망도 푸르다.

너는 나를 모르고 나 또한 너를 모른다.

사랑한다고 다 행복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다.

어제는 잊어버리고 내일은 모른다.

오늘에 내가 살고 내가 살기에 오늘이다.

땅만 보지 말고 하늘도 보아라.

보이는 오늘도 중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내일도 중요하다.

울음이 없는 인생 바라지 말고 기쁨만 누릴 날들만 소원하지도 말아라.

네가 있어야 하듯 나도 있어야 한다. 생각하며 살자. 살면서 생각하자.

오늘은 바람이 불어도 내일은 잔잔하다.

친구가 동무야 살자. 웃자. 울 일을 만나면 울고 헤어져야 하거든 헤어지자.

인생은 그저 그런 거란다.

kkiwon2002@hanmail.net

미래에도 여전히 교회공동체는 부흥한다

(1면에서 계속)

그렇지만 사람들은 곧 익숙해질 것이다. 이미 익숙해지고 있다.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는 도시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어제 새삼 깨달았다. 집에 오는 길에 운전 중 내 옆 차선에서 상점 두 개를 지나쳤다. 하나는 푸드 트럭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동식 자전거 수리점이었다. 도시에서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점포를 얻어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생겨난 것들이다.

살아남을 교회들

어떤 사람들은 콘크리트 상점으로 대변되는 구세대의 방식을 고수하다가 파산에 이르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혁신적 아이디어-또는 구세대의 방식에 새로운 상상력을 덧붙인 아이디어-를 새롭게 계속 실험할 것이다.

요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식당이나 점포를 차리는 것보다 트럭 사는 걸 선호하는 것 같다. 고객들이 가게에 찾아오길 기다리는 대신에 고객들이나 지역사회 행사에 찾아가 이동식 점포를 차리고 점심이나 저녁을 판매한다. 또는 고객들이 편한 장소를 찾아가 자전거나 차량을 수리해준다.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가들

만큼이나 확실히 혁신적이고 적응력이 있다. 또 그래야만 한다. 내가 볼 때 다음 세대 또는 그다음 세대에 벌어들일 일은 이렇다.

옛날 방식이나 성경 밖의 방식에 매달리는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다가 사라지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자기 방식을 바꾼 교회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변화란 그런 것이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살아남을 것이고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교회들보다 더욱 번창할 것이다. 시대를 앞서 가게 될 것이다.

미래 교회의 모습

그럼 미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새로운 방식이 하나는

아닐 것이다. 새로운 방식들이 다양하게 넘쳐날 것이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때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가상 예배가 번성할 경우에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모이고 싶은 욕구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그제 집이든 커피숍이든 공원이든 가설무대든 상관없다.

아무리 기술이 진보할지라도 공기를 호흡해야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바꿀 수 없듯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 '그런 예배 장소는 어떤 모습일까' 내게 묻는다면? 나도 잘 모르겠다. 미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 모습이 무척 기대된다.

pwkim529@gmail.com

(2면에서 계속)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징조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44). 또한 히브리서에서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45).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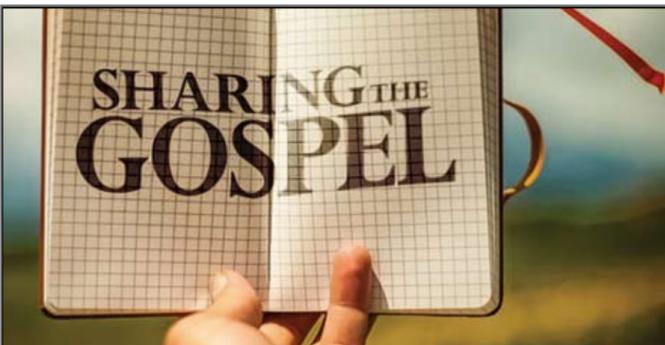
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늘나라 천사 기자들을 보내셔서 각자 맡겨주신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진을 찍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44절에 이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45).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아주든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먹이려고 충성하는 목회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늘 변함없이 성도들 섬기기를 힘쓰는 직분자들과 교우들을 보시며 예수님도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잘 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좋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거라'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

원에 기대어 아주 짧게 이 땅에서 있습니다. 저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모두 질문해봅시다.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자로서 진실하게 살고 있나?"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나?"



90% 불신자 전도와 90% 정착의 열매가 있는 대구목자교회

전도와 새가족 정착 세미나

대구목자교회는 90%전도를 통해 이루어진 교회이며 오직 불신자 전도로 7배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도의 은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전략과 방법은 다양해야 합니다.

목자교회의 전도방법은 이론만 말하고 동기부여만 하는 전도세미나가 아니라 각 교회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전도시스템입니다.

대구 목자교회는 90%이상의 새 가족이 정착하는 교회입니다. 체계적인 양육과 시스템을 통해서 새 가족이 정착하여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목자교회 새 가족 사역을 담당하는 이해란 사모의 강의와 새 가족부원들의 구체적인 사역을 소개합니다.

일시 2018년 10월 13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LA찬양교회(김성대 목사 시무)
3401 W. 3rd St. L.A., CA 90020(전화 213-383-7284)

등록비 무료
혜택 강의자료집, 점심식사
대상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주관 LA찬양교회
후원 사단법인처치파트너스 / 목자교회(Mokja) / 경북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203(서변동)
전화 (053)955-1001, www.mokja1000.com

박기준 목사 초청 부흥성회

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 14일(주일) 저녁 7:30
주제 전성기를 구하라(시31:15)
장소 LA찬양교회(김성대 목사 시무)
· 11일(목) 저녁 - 천배의 복을 기대하라
· 12일(금) 저녁 - 확신하며 살라
· 13일(토) 저녁 - 하늘문을 열어주라
· 14일(주일) 오전 - 전성기를 구하라

강사



박기준 목사 (대구목자교회)

이해란 사모 (대구목자교회)

세미나 내용

제1강의	전도하는 교회인가? 전도되는 교회인가?
제2강의	목자교회 전도사역 소개
점심식사	
제3강의	목자교회새가족사역 시스템 & 베프사역이란?
제4강의	새 가족 사역 사례 발표와 현장체험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보디올에서

얼마 전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오기 위해 하선했던 항구 보디올(행28:13)을 다녀왔다. 현재는 포주올리(Pozzuoli)로 지명만 바뀌었을 뿐, 같은 지역이고 동일한 바다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니 할 말이 너무 많다는 듯 출렁이는 몸짓으로 길손을 맞이한다.

성경에는 바울이 보디올에 내려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 한 주간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고(행28:14)고 했다. 당시 보디올에는 인구가 14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니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당시 보디올은 로마에서 가장 큰 무역항으로 전 세계의 배들이 이곳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알 빠르게 듣고 그를 기다렸던 보디올의 성도들, 그들의 초청을 받고 한 주간씩이나 머물렀던 자리가 어디쯤일까 하는 마

음으로 보디올의 항구를 보듬고 있는 타원형 도시를 한참이나 서서 둘러보았다.

당시 이곳은 로마 귀족들의 최고의 별장이 몰려 있는 곳으로 각 황제들의 별장들이 있었다. 네로의 별장도 물론 빠질 수 없었고... 또한 잘사는 자들에게 건너될 수 없는 것이 허끝을 충족시켜 주는 일이다. 그것은 좋은 술과 맛있는 고급스런 음식일 것이다. 특권층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이곳 바다는 2천 년 전에 벌써 양식장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그 양식장은 현대의 양식장과 차이가 없다고 한다. 다만 현대는 기계를 이용하는 것이 다를 뿐.

신선한 해물을 특권층의 식탁에 올리기 위한 발상은 놀랍기만 하다. 바울은 이곳에 하선하여 한 주간을 자신을 초청한 성도의 집에서 지낸 후에 아피아(Appia) 가도로 200Km를 걸어서 로마로 갔다. 한 주간 가까이 가는 길이었기에 숙박하면서 갔을 것이다. 기회가 되면 동료들과 함께 바울을 목상하면서 한 주간을 걸어서 이 길을

걸어보고 싶다. 중간에 야영을 하면서 말이다.

스페인인 산티아고는 782Km로 40일 동안 완주하는 코스라고 한다. 그 길을 걷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신앙문제, 가족문제, 부부문제, 이성문제, 친구문제, 장래문제 등등.

그러나 아피아 가도는 성경적 역사로 볼 때 훨씬 더 의미 깊은 길이다.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누가, 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바브로디도, 디도, 그레스케, 오네시모 등등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주요 클레멘트의 편지에 의하면 베드로도 이 길을 걸어서 로마로 들어왔다.

한 주간을 오로지 바울과 그를 협조했던 복음의 일꾼들을 목상하면서 이 길을 걸어간다면 아마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는다. 더더욱 이 길을 통해 파리로 가던 중 스페인 철학의 태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길이기도 하다. 바울이 숙박했



을 지도 모르는 삼관은 현재 쓸쓸하게 돌무덤으로 남아있다.

그 돌무더기를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냄새를 맡아보며 팔로 안아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아닐까 싶다. 바울과 위대한 영적 선

배들이 땅 흘러며, 또는 복음에 감격하여 눈물 뿌리면서 걸어갔던 아피아 안티카(Appia Antica)의 유서 깊은 길, 그 길을 걸어서 완주하고 싶다. 죽기 전에... chiesadiroma@daum.net

푸/른/초/장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신다. 징계 받을 때는 아프고 힘들다.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신다. 우리가 자녀를 때릴 때 맞는 자녀들도 아프지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것과 같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다(에가3:33).

그런데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셔야 할 때가 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징계하셨으므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

여호사밧왕은 유대나라 여러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다. 그는 왕으로 즉위하자 먼저 전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고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또한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내었다.

즉위 삼년에 이르러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누구나 성경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율법 교사로 전국에 파송했다. 이들이 여호와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대 모든 성읍들

을 일일이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게 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나라가 강대해졌고 여호사밧도 부귀와

는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왕과 화친하고 더 나아가 사둔이 되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리라”(왕하22:44). 믿음의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열왕기상 22장 48-50절)

영화를 누리게 해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에게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히 유대를 엿보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전쟁이 있으면 편안할 수가 없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축복도 물결처럼 일어났다.

이런 여호사밧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가 대인관계에서 만난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인간 위주였다. 그래서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

사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그런 자와 절친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다. 참된 선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분노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선이다.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잘못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아합왕과 더불어 마음으로 통하고 사둔을 맺고 더 나아가서 그를 도와서 그와 함께 전쟁에 출전까지 했다. 이 전쟁에서 아합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도망칠 수 있었다. 이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여호사밧을 책망하셨다.

1. 잘못할 때 징계하신다.

대하 19:2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여 때로는 대군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신다. 물론 징계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그 전쟁에 대처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이것이 유명한 브라가 골짜기 전쟁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 전쟁 후에도 또 그는 악한 자와 교제를 했다. 그는 아합이 죽은 뒤 아합의 아들 악한 아하시아왕과도 교제를 했다. 하나님은 그의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으

라”(대하20:37).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를 끊지 않고 함께 배를 건조하여 오빌의 금을 캐기 위해 보내려고 했으므로 하나님이 그가 만든 배가 출항도 하기 전에 파선시켜 버리셨다.

그 이전에는 솔로몬왕도 예시온 계벨에서 배를 건조하고 히람의 뱃사공들과 솔로몬의 종들이 함께 오빌에 가서 금 420 달란트를 얻어 왔었고(왕상9:28) 그 후에도 삼년에 한번씩 오빌에 가서 금과 은과 상아와 많은 보석들을 가져왔었다(왕상10:22). 솔로몬은 이 해운업에 크게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같은 예시온 계벨 항구에서 배를 건조하고 오빌에 금을 얻기 위해 가려 했으나 배는 출항도 하기 전에 풍랑에 파선되어 버렸다.

간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성공했고 여호사밧은 크게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한 자에게도, 실패한 자에게도 적절한 은혜를 주셨다. 오랜 계획이 다 무너지고 파선당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2. 징계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바로 살게 하신다.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그러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5면으로 계속)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읍기서의 첫 장면은 '우스 땅에 사는 읍'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읍에 대한 말들을 보면 그는 참 복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한다. 그러므로 그가 사는 '우스'라는 땅도 역시 복 받은 땅임을 알게 된다. 왜 그러하냐? 우스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방의 가장 큰 자요, 유력한 자요, 하늘의 큰 복을 받은 사람 읍'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복이 있기에, 그가 사는 곳도 복된 곳이라는 성경적인 원리의 적용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정말 큰 복을 받은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는 곳

을 한다. 본 교회에도 교수 등의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검약한 생활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교회의 리더가 되고 직분자가 될 때 새롭게 강조한다. 중직자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부요하고 풍성하여 나눌 것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더욱 힘써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같이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 이삭은 백배의 농사를 짓게 되었는가? 이삭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기에, 그 땅이 복을 받은 것이다. 성경 속 열왕기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의 때에 온 나라가 복을 받고, 악한 왕의 때에 흉년과 기근이 반복해서 나타났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의 때에는 그 땅이, 온 나라가 복을 받았으며 이웃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평강을 누렸다. 그러나 악한 왕이 들어서서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신 것을 본다. 하늘에서 비가

를 내리지 않음으로, 가뭄이 찾아왔다. 가뭄을 겪으면서 농사는 흉년이 되었다. 흉년에 때에 기근이 찾아옴으로 사람들은 먹고 살기위해 떠도는 인생들이 되었다. 돼지가 먹는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먹고 살기위해 종이 되거나, 이웃나라에 잡혀 먹여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의 때에는 그 땅이, 온 나라가 복을 받았으며 이웃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평강을 누렸다. 그러나 악한 왕이 들어서서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신 것을 본다. 하늘에서 비가

를 내리지 않음으로, 가뭄이 찾아왔다. 가뭄을 겪으면서 농사는 흉년이 되었다. 흉년에 때에 기근이 찾아옴으로 사람들은 먹고 살기위해 떠도는 인생들이 되었다. 돼지가 먹는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결국 먹고 살기위해 종이 되거나, 이웃나라에 잡혀 먹여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의 때에는 그 땅이, 온 나라가 복을 받았으며 이웃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평강을 누렸다. 그러나 악한 왕이 들어서서 우상숭배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신 것을 본다. 하늘에서 비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요한계시록 13장을 읽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사람의 이마에나 손에 받게 하는 666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잡다한 해석들이 많은데 올바른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생 이희은

A: 666표에 대해 난무한 해석이 있으나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 총신에서 성경해석학을 가르쳤던 권성수 교수는 그의 책 '요한계시록'(p. 298-299)에서 오늘 계시록 13장의 666표를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문의 표는 실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바다짐승(즉그리스도)의 표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 13장의 표는 문자적인 표시가 아니다"라고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계시록 14장 1절을 읽어보라. 여기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은 실제로 신자들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어린 양 예수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소유로 확인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바로 앞의 짐승의

666 숫자는 상징적...표는 문자적 아닌 상징적 표시

표도 상징적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둘째, 7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표를 받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 역시 문자적인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절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1-2절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신자)들을 처량하는 것도 문자적으로 처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계시록 전체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과 사단에 속한 자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어린 양과 성부 하나님의 인이나 처량이나 이름을 받은 자들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후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넷째, 계시록 13장 17절에도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이름의 수라고 한 다음 13장 18절에 바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단9:22절 참조). 만일 여기서 말하는 수가 문자적인 것이고 666이라는 수가 문자적인 것이라면 이것을 세어보는 총명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기 위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대해 신약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헨드릭슨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가족에다 낙인을 찍었고 심지어 노예들에게까지 표식을 하여 구별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표는 노예나 가족의 소유자를 밝히는 구실을 합니다. 어느 주인에게 예속되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소유, 또 누구에게 순배하고 섬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이 표는 이마나 오른손에 찍힙니다. 이마는 심령을 생활의 사상을 개인의 철학을 상징하며 오른손은 인간의 행위, 활동, 직업, 생업 등을 말합니다.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은 제 6일에 창조되었습니다. 여섯이라는 숫자는 결코 일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영원토록 완전해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은 목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즉 실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어떠한가? 이 수는 완전, 완성 그리고 승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기뻐하라 승리는 너희 것이다. 짐승의 수는 666이니 이 숫자는 실패를 그리고 실패 위에 실패를 더하는 것'을 말합니다(Failure upon failure upon failure).

(4면에서 계속)

여호사밧 왕은 배가 깨어진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파선한 후에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여호사밧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하시아와 교제를 끊고 그 후에 아하시아 왕이 다시 함께 배를 건조해서 해운업을 같이 하자고 했으나 여호사밧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아하시아의 제안을 거절한 여호사밧이 너무 멋있어 보인다. 비록 배는 파선되었으나 그의 인생은 파선되지 않았다. 비록 배는 파선되었으나 그의 신앙이 파선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그를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 깊은 문제를 깎아내려서 고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신다.

신앙인으로 바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기쁨도 화려한 것도 고운 것도 다 지나가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서기 때문이다.

3. 징계를 통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하신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50절).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 끝이 좋지 않으면 실패자다. 그러나 비록 시작과 과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도 끝이 좋으면 성공자다. "끝이 좋아야 시

작이 빛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여호사밧은 그가 받은 징계와 실패 때문에 그 인생의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의 복된 죽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은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셨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하신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열왕의 묘실에 장사된 왕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뿐이다. 이들은 다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킨 왕들이었다. 웃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마지막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문동병에 걸려 죽었고 열왕의 묘실이 아닌 그 인접한 곳에 묻히게 되었다. 여호사밧은 징계를 통해서 신앙인으로 바로 살게 되었고 인생을 복되게 마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고질화된 죄와 문제를 고쳐주신다. 그래서 더 바른 신앙인의 인격을 갖추게 하신다. 또한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게 하신다.

혹시 지금 축복의 길을 가고 있다면 겸손히 계속 가기를 바란다.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계획이 좌초되고 마치 파선당한 것 같은 분이 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란다. 그러면 당신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을 아름답게 끝마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ok.kfpcchurch@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들교회)

사람이 좋으면 땅도 좋아집니다

-조국을 위한 기도, 땅을 고치는 신앙

을 가보면, 그가 사는 본인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변사람들은 몽땅 다 거지꼴을 하고 살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경우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비록 축복의 열매는 가졌을지 몰라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닌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복은 '알박기'를 해서라도 자기 복만 취하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에 살림의 복을 더불어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과 복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뜻대로 부림을 입은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다. 모든 것이 무엇인가? 기쁜 일, 슬픈 일, 한숨 쉴 만한 일, 낙심되는 일, 즐거운 일 등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짝꿍(?)하거나 믹스해서서 마침내 선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심은 좋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선은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내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선의 열매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가신다. 그것이 내게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 수밖에 없다.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가운데, 그의 복 주심을 믿음으로 간구한다.

복 받기를 사모함

성도들에게 늘 복 받기를 사모하라고 강권한다. 믿음 좋은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사모하라고 말한다. 만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복을 구하라고 말한다.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안빈낙도가 아니다. 강호에 낚시대 드리우고 세월을 낚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게 하여 세우는 것이다. 무조건 자신의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것을 목적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복을 제공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갈아치우든지 없애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다. 섬김의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기만 하면 된다는 사상이 기독교인이다.

기복신앙, 하나님의 복

혹자는 복을 말하면 무조건 '기복신앙'이 아니냐고 알려지 반응을 한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알은 지식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내비친다. 기복신앙이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마음을 합한 우상과 신물을 스스로 택하여 세우는 것이다. 무조건 자신의 원하는 복을 얻어내는 것을 목적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복을 제공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갈아치우든지 없애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다. 섬김의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복을 얻기만 하면 된다는 사상이 기복신앙이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기준으로 기복적이라는 말을 쉽게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

누구라도 하나님 잘되어도 나머지 자녀들에게 그 복이 나누어지게 되지만, 특별히 만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그 마음에서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장로님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종갓집 신앙

시골 고향집을 부모님과 방문할 때가 자주 있었다. 먼저 이곳 저곳 일가 친척집을 돌아보면서 인사를 하느라면 서로 자기네 집으로 와서 밥을 먹고 가도록 권한다. 그러나 아버님은 기쁨으로 답은 하시는데, 늘 같은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 배나무가 있는 큰 집이었는데, 바로 종갓집이다. 종손이 살면서 풍성하게 농사를 지어 살기에, 나누고도 풍성함이 있는 그 집에서 불편함 없이 식사와 교제를 하고 돌아오게 된다.

종갓집은 경우 최 부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자가 없게 하라는 것처럼, 넉넉하여서 누구든지 그를 찾는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의미이다. 장로님들이 믿음 좋은 경우 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그럴 때에 그가 가진 물질이 복이 될 것이다. 만약 자신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인근지역은 다 굶어죽는다 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얻은 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기도드린다. 누구든지 이곳 리틀락을 찾아오는 이가 있다면, 제자들교회 모 장로님을 찾아가면 살 길이 있고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신봉신을 막론하고 그런 평을 받는 분이 있다면, 그는 읍처럼 자신이 사는 땅을 '우스'처럼 만드는 복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

사람이 좋으면 땅이 좋아진다

한국의 풍수지리 사상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인생은 영터리 같아도 땅만 좋으면 복을 받는다'는 사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스리고 정복할 땅이 오히려 인생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사람이 좋으면, 땅도 좋아진다. 하나님의 복도 임한다'는 것이다. 즉, 내가 복 받는 자가 되면 그 땅이 복 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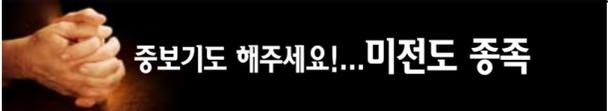
사람이 중요, 리더가 중요

왜 똑같이 사역을 해도 한사람은 성공하는데 다른 사람은 망하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삶의 현장에서 성공한 것이 없고, 당한 것 밖에 없다면,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에 대해 문제시 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임박한 증거가 될 것이다.

사람이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 앞선 위정자들이 중요하다. 미국의 축복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나라이며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과거형이다. 이것이 현재적으로 무너진다면 이 땅의 복과 저주는 정말 한낱 해가 나면 사라질 안개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장관들과 헌법 재판관들의 청문회를 통해 말하는 것을 보면 조국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온다. 사람이 복이 있어야 그 땅이 잘 될 것인데, 앞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것을 정당하게 주장하며, 더구나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신앙고백적인 말들이 전혀 비 성경적인 합리화임을 보게 될 때, 그 행동의 가치관 앞에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된다. 저들이 조국의 앞선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땅과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릴 눈물이 얼마나 될 것인가? 기도가 필요하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난창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 기도하였듯이,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드린다. 주여, 저들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소서.

davidnjeon@yahoo.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중국의 푸미(Pumi)



3만명 이상의 푸미족이 중국 남부 윈난성의 북서부 고산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55개 공식적인 소수민족 중 하나다. 언어는 푸미어이며, 중국-티베트어족에 속한다. 티베트 문자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점차 한자로 전환되고 있다.

푸미족의 선조들은 티베트 고원의 유목민이었다. 1000여년전, 춥고 고립된 고지대를 떠나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지역을 찾아 쓰촨성 지역으로 이동했다. 14세기까지 윈난성으로 이주했고 지금에 이르러 있다. 최근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푸미족은 매우 원시적인 생활을 해왔으며, 실제적으로 현대문명과는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1949년 공산혁명과 봉건제도의 붕괴 이후에 생활수준은 다소 개선됐다.

생활

푸미족의 대부분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농경지는 2,500미터 이상의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작물은 주식인 옥수수, 쌀, 밀, 고산지 보리 등이다. 그 외 흔한 열매와 채소류로는 양배추, 당근류, 가지류, 멜론류가 있다. 푸미족은 양봉을 하고 소, 양, 닭, 돼지 등의 가축을 기른다. 푸미족 마을은 양지바른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가옥은 통나무로 지으며, 나무판자로 만든 지붕이 있다. 집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은 창고와 가축우리로 사용된다. 가족들은 위에서 생활하며, 난로가 위층의 중앙에 위치해 사람들의 생활중심이 되고 있다.

신앙

푸미족 여인들은 지역에 따라 독특한 고유의상을 입는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편에 단추가 달린 상의 위에 조끼를 걸치고, 주름진 통치마를 입는다. 다른 곳에서는 치마보다는 바지에 짧은 코트를 입는다. 거의 모든 푸미족 여인들은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반지를 하며, 대부분은 긴 양가죽 코트를 어깨 위에 걸치고 있다. 의복의 가장 큰 특징은 머리에 쓰는 커다란 두건이다. 벗었을 때 두건의 길이는 4미터에 이른다. 푸미족의 결혼풍습은 일부일처제다. 대부분의 결혼은 부모들에 의해 결정되며, 과거에는 신랑신부가 어렸을 때 정혼하기도 했다. 푸미족 결혼식은 노래와 춤, 잔치로 이루어진다.

신앙

전통적으로, 푸미족은 티베트불교로 알려져 있는 라마불교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는 없는 의식과 미신적 습관이 상당수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조상을 섬기고 가정 수호신을 믿는다. 불교에서는 인생이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생사의 연속적인 순환이라고 가르친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은 이 순환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과 평화의 상태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진리에 대한 앎, 생명존중, 자기부인, 명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며, 그 중에 하나가 정통 불교와 전통 티베트 의식이 결합된 티베트불교다.

필요

푸미족의 생활이 최근에 들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계에 얽매고 있던 가난한 농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근래 중국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지만 신규 투자의 많은 부분이 주요 도시에 이루어지고 산업과 무역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이로부터 소외된 지역에서는 진보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양식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나 수도, 보건 시설 없이 살아가고 있다. 또한, 모든 중국 내 민족 집단과 마찬가지로 강압적인 공산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사탄교 탐닉 미국인들 급증

미국 오클라호마시 티에 사는 애덤 다니엘스(35)는 사탄을 숭배하는 아히리만 교회의 제사장이다. 그는 15명의 신도와 함께 아히리만을 섬긴다. 아히리만은 지옥의 신으로 불리며 페르시아 악마인 '안그라 메인유(Angra Mainyu)'의 다른 이름이다. 신도들은 다니엘스의 집 창고에 모여 의식을 갖는다. 다니엘스는 신도들과 함께 사탄 숭배 결혼식을 올리거나 사탄 엑소시즘을 열고 있다.



영국 더선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다니엘스는 원래 불교도였다. 종교적 열정은 크지 않았지만 열아홉 살 때 무장 강도를 만난 이후로 사탄교에 빠졌다. 그가 일하던 편의점으로 무장 강도가 들어와 손님을 칼로 찔렀다. 다니엘스는 합기도로 강도에 맞섰는데 강도가 잘못 넘어지며 숨졌다. 다니엘스는 "내가 남을 죽일 거라는 걸 그 누가 상상하겠어요.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해서 강도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라며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고 말했다. 엉뚱하게 사건에 휘말려 살인까지 하게 된 그는 심리적 고통에 시달렸다. 병원에도 가보고 종교에도 기대했지만 실망만 했다. 다니엘스는 "위안을 구했지만 크리스천이나 불교인들은 모두 내가 저지른 일을 죄악이라고 했다"면서 "심지어 내 엄마조차 그랬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앤턴 라베이가 쓴 사탄교 성경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아내와 함께 사탄 교회를 시작했다.

다니엘스의 딸 엠버(14)는 그러나 사탄교에 빠진 부모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여섯 살 때는 마녀들이 숭배했다는 염소 모습의 악마 '바포메트' 목걸이를 걸고 등교했다가 제지받은 적이 있다. 6학년 때는 서점에서 이름을 쓰면 성경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엠버의 부모는 성경을 내버렸다.

다니엘스는 고의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성경이나 이슬람 코람, 탈레드, 도라, 불교 수트라 등을 태운다. 자신의 언행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목표라고 말한다. 그는 "난 하나님도 책임을 질 게 없다"면서 "날 위해 책임을 저줄 하나님도 없다"고 말했다.

다니엘스 외에도 미국에서 사탄교에 빠진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LA타임스는 올 초 할리우드 동쪽 실버레이크 저수지(Silver Lake Reservoir) 근처에서 사탄교회를 운영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아내 알렉산드라 제임스와 남편 제커리 제임스는 집 지하실 제단에 사람 두개골을 놓고 종교적 의식을 벌인다. 알렉산드라가 남편의 가슴에 겨누는 칼을 돌려며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다스리기 위해 칼을 제단에 바친다"면서 "두개골, 죽은 사람의 상자로, 위대한 어머니 릴리스가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파괴할 것이다"라고 외치며 함께 모인 신도들은 사탄을 연호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내 사탄교 추종자들은 1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신도가 급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급진적인 의견을 표출하려는 사람들이 사탄교로 몰렸다는 것이다. 사탄교의 일종인 '사탄의 신전(Satanic Temple)'측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만 3일 만에 수천 명의 신도가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통적인 교회가 쇠퇴하는 사이 사탄교가 몸집을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는데 교회는 형식이나 관습에 얽매고 사탄교는 빠르게 사람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중국, 한국선교사 추방·한인교회 폐쇄 잇따라

중국정부의 종교활동 규제로 올 초부터 중국 내 한국 선교사 추방 및 한인교회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새한국기물관리재단(이사장 김복권)은 19일 한국교

회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재단은 이날 중국 내 종교활동 규제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문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 2월 종교사무조례를 개정 후 자국 내 종교단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내 한인교회의 집회 중단 및 폐쇄 명령, 선교사 강제추방 및 자자연장 거부 등의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공문에선 중국정부의 주요 단속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 4월 상하이시정부는 푸둥은혜교회 목사를 연행해 조사한 뒤 자진 출국을 요구했다. 같은 달 국가안전부는 항저우시 한인교회인 열린문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지린성 당국은 지린한인교회 목사 및 엔벤과기대 교수 등 10여명에게 자진 출국토록 했다. 이달 들어서는 광시좡족자치구 국가안전청이 한국의 한 선교단체 관계자 6명을 조사했다.

김진태 재단 사무총장은 "중국정부의 종교활동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의 활동도 위축되는 추세"라며 "특히 기독교의 경우 중국인이 이끄는 가정교회도 폐쇄하는 등 중국정부가 강력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자국 내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교회의 대중국 선교전략을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기 위해 오는 12월 초 중국 내 한인 선교사 추방 사례를 논의하고 새 전략을 논의하는 포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 교도소 수감 트랜스젠더 성범죄 행각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영국인이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다른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도 자신이 주장하는 성정체성을 존중 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일부 한국의 움직임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메트로 등 영국 신문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테판 우드(Stephen Wood·52)라는 영국인은 웨스트요크셔 카운티에 있는 여성 감옥인 뉴 힐 프리즌(New Hill Prison)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다수의 여성 수감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우드는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다른 여성 수감자들의 가슴을 만졌다. 또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거나 다른 수감자들이 원치 않는 키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우드와 가까이 지냈던 한 여성은 법정에서 "그는 가끔 크로스 드레서(이성 복장을 입는 사람)로 활동할 뿐 남자"라면서 "그는 평소 남성 옷을 입고 면도도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리즈의 형사법원은 우드가 받고 있는 총 4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우드는 판결 직후 남성 전용 교도소로 이감됐다.

우드는 과거 소아성에 행각을 벌였고 2016년에는 또 다른 여성을 강간해 수감된 전력이 있다. 또 이웃을 칼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우드는 2014년 이후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이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이름을 카렌 화이트 등으로 바꾸기도 했다.

영국은 개인이 주장하는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125명의 성전환자 죄수가 수감돼 있다.

교도소 대변인은 "이번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성전환자를 포함한 모든 죄수를 섬세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모든 죄수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뉴욕-중전선언·빈-비핵화...美, '투 트랙' 대화 제안

미국은 평양공동선언을 크게 환영하면서 미국 뉴욕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 대화를 갖자고 전격 제

안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까지 대북 제재를 강조했던 미국이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대화 모드로 급선회한 것이다. 북·미가 비핵화와 중전선언·평화체제 교환이라는 거대한 '빅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돼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19일 발표된 성명에서 투 트랙의 북·미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평양공동선언을 반기면서 "미국은 북·미 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협상에 적극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대표자들에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을 요청했다"고 밝혀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나와 협상 상대인 리용호 외무상 모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이 예정돼 있어 리 외무상에게 다음 주 뉴욕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빈 대화채널'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1년 1월까지 비핵화를 완성해 북·미 관계를 변화시키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에서 나타난 향후 북·미 협상의 키워드는 '비핵화' 북·미 관계 변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 가지다. 여기서 비핵화는 빈 채널의 몫이고, 북·미 관계 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뉴욕 채널의 업무가 될 전망이다.

뉴욕 채널은 양측의 장관인 '리용호-폼페이오 라인'이 이끈다. 이들은 큰 틀의 정치적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뉴욕 채널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될 빈 채널에서는 핵 신고·폐기·검증이라는 비핵화의 구체적이고 복잡한 과정이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 측 대표로는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확정됐고, 북측 대표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 부상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 측 실무 책임자였던 성길 주필립린 대사와 막판까지 의제 협상을 벌였던 인물이다. 이를 감안하면 '최선희-비건 라인'이 빈 채널을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빈을 북·미 대화 장소로 꼭 잡는 것도 비핵화 의지를 담은 조치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미 대화의 주 무대는 스위스 제네바 또는 중국 베이징이었다. 미국이 빈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지목한 것은 오스트리아가 서방에 몸담고 있지만 비교적 중립국가라 북한과 미국의 대사관이 모두 주재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 검증을 담당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가 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빈을 북한 비핵화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We will be)"이라고 답했다. 또 "남북한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며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만들고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美, 기대감 속 다시 고개드는 신중론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크게 반기고 나선던 미국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대북 신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속임수 전술을 쓰고 있다"며 "미국은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돕는 개인과 단체, 선박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선박과 선박'을 통한 환적을 이용해 정세유 등을 불법적으로 수출·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무부는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의 개인이나 단체가 '선박과 선박'을 이용한 환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미국과 협력국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비핵화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준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의 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대화와 제재 유지라는 투 트랙 전술을 이어나갈 계획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영국 B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맞아 돌아가고 일정이 잡힌다면 머지않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협상) 거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우리는 경제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핵 위협은 여전히 있다"면서 "과거보다 북핵 위협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들뜬 기대감과 신중 모드를 함께 내비쳤다.

그는 21일 미주리주 스포링필드에서 가진 공화당 지원유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를 전에 '훌륭한(beautiful)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친서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 수용 등을 포함한 진전된 내용을 담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이 돌아오고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들이 송환되고 있다"고 자신의 치적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북·미 대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21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폐기할 때까지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론에 가세했다.

Table with 4 columns: Publication Title, Issue Date, Average No. Copies Each Issue During Preceding 12 Months, No. Copies of Single Issue Published Nearest to Filing Date. Includes data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for Sep 8, 2018.

Statement of Ownership, Management, and Circulation form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dated Sep 21, 2018.

중세교회 이단

이단은 위험하다.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단이 교회에 침범하여 교인들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절대로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세교회에도 이단이 출현했다. 놀랄 일이 아니다. 이단은 이미 초대교회에도 존재했다. 즉 시대를 초월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성경적 진리와 사도적 신앙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어 왔다.

단지 영적 어둠에 잠겼던 중세교회가 내린 이단에 대한 판단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교회의 정통성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중세교회의 관심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고 도모하는 것보다,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힘을 키워 유럽의 교회와 정치를 장악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카타리파

11-12세기, 남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단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중심무대가 알비라는 도시였기에, 카타리파를 알비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대교회에 등장한 마니교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그들은 세상이 두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었다. 물질적인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는데, 그는 다름 아닌 사탄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악한 육체 안에 갇혀있는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신성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야 할 진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성육신한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교리를 전적으로 부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노센트 3세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하였을까? 교회 안에 항상 이단은 존재하여 왔지

타리파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먼저 설교자를 파송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미 그 지역의 귀족과 일부 주교들과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후원을 받던 그들을 돌이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노센트 3세가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하였을까? 교회 안에 항상 이단은 존재하여 왔지

가 누구인가를 판명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노센트 3세의 공헌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노센트 3세가 십자군을 파견한 동기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특히 상대가 이단이란 확신이 생길 때, 십자가의 이름으로 소위 비인간적인 학살을 감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얻어야 한다.

그 당시 교회는 절대적인 힘을 지니고

용한 것이다. 그들은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교문을 자행하였다.

특히 1252년 5월, 교황 이노센트 4세(Innocent IV, 1195-1254)의 칙서에 의하여 교문을 합법화한 뒤로, 더욱 그 방법이 잔인해졌다. 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몸을 으스러지도록 쪼이고, 칼로 생살을 도려내고, 불로 고문하거나 태워뜨리고, 끓는 물을 붓고,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고, 시뻘겋게 달군 철봉 사용 등,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문을 자행하였다.

알도파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종교재판소의 황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 있다. 프랑스 리옹 출신 피터 왈도(Peter Waldo, 1140-1205)의 사상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준 뒤, 평생 거지처럼 살면서 주위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매진하였다.

교회는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오직 사제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며, 그들을 박멸하기 시작하였다. 왈도파의 모임을 해산시켰고, 번역된 성경은 불태웠으며, 집을 불태워 죽일 데 없게 만들었으며, 잔혹한 고문과 화형을 행하는 등 가혹한 박해가 지속되었다.

교회의 권한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가 선택한 이단 대처법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데 더욱 관심이 있었다. 카타리파와 왈도파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걸림돌이었기에, 온갖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의 신앙을 억제하려 하였다.

21세기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한을 반드시 행사하여야 한다. 이단과 이단성을 지닌 개인과 집단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때에, 어떤 동기와 기준을 지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2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중세교회, 이단대처에 십자군 파병으로 무력 행사 카타리파는 이단이나 알도파는 성경적 운동 일으켜

만, 그들의 약한 세력으로 인해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노센트 3세는 그들을 공개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토벌하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을 결정하였다. 십자군을 결성하여 그곳에 파송하는 것이다.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 십자군 원정의 원래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있었다. 이단을 몰아내는 것은 교회에게 부여된 특권이자 책임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역사가들은 십자군 원정의 정치적 동기를 묵과하지 않는다.

현대도 이단에 침묵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 망가뜨리는 일 이단규제, 정치적 상황과 인간적 관계 배제 성경적 진리로

터 버림받은 일부 하급성직자들, 그리고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로마교회를 견제하려던 봉건영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점점 순수성을 잃어 가더니, 결국 4차 십자군 원정을 마친 후 1209년부터 1229년까지 알비 십자군이 카타리파의 중심지를 향해 진격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눈에 비쳐진 이단의 모습은 무조건 없애야 하는 대상이었다. 그들을 교리적으로 설득시키거나 사랑으로 감싸서 교화시키려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협하거나 장애물로 여겨지는 자들은 무조건 재판에 넘겨 처단하는 것이었다.

알비 십자군 원정

로마 가톨릭교회는 카타리파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들이 교리적으로 정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카타리파중세 십자군 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종교재판소

중세교회가 이단이었던 카타리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이단의 신학적인 기준이 기록론, 즉 예수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the Los Angeles area, including churches like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든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동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인교회,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요셉선교회, 엘버인침례교회, 일셔크리스천교회, 은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중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워렌스, Irvine, and Torrance churches, and a section for finding a church in your area.



성경도 신앙(63)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아주 명백하게 그 관점이 드러나 있다. 그 신앙고백 23장의 제목은 '국가 행정부에 관하여'(Of the Civil Magistrate)인데 벨릭 신앙고백과 매우 유사하다:

"은 세상을 통치하는 최고의 주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국가 행정관들을 지명하시라 그 수하에 있게 하시어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도모하도록 하사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키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도록 하사다."

그 둘째 대목을 이렇게 진술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행정부의 요직을 감당하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승낙하고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 행정부가 경영함에 있어서 마땅히 각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별하게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그들은 합법적으로 신약성경의 지원을 받으며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부분은 23장 세 번째 대목이다:

"국가 행정부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할 권한을 스스로 취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열쇠를 맡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 안에서 연합과 화평이 보존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순전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모든 신성 모독과 이단들을 억압하며 예배와 관징에 있어서 모든 부패와 과도함을 방지하거나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제도가 바르게 집행되고 집행되고 지켜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행정부는 그와 같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대회들을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부 당국자들이 그 대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대회들 속에서 처리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신앙고백 속에서 행정 당국에 주어진 권세를 보면 행정 당국자가 대회를 소집할 수 있고 대회들에 참석할 수 있다. 심지어 그 행정 당국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신앙고백 23장 4조는 이렇게 말한다:

"그 행정부의 수반이 종교에 대해 냉담하든지 불신앙자라 할

실체를 가지려고 추구할 때 항상 국가에 너무 많은 권세를 주려는 경향이 항상 존재해왔다. 특히 벨릭 신앙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 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메릴 같은 자들의 놀라운 통찰력과 저항도 있었다.

이러한 모든 관점들은 개인마다 시대마다 다른 경향을 띠고 나타났기 때문에 단순하고 일관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대략적인 언급을 통해 청교도 전후의 국가와 교회에 대한 역사적 견해와 과정

활동적으로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국가와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교회와 국가와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것은 참된 복음 전도에 큰 장애물이 되어왔고 지금도 그렇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보편적으로 교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참된 부흥을 억제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회 속에서 만드신 주목할 만한 복음 전도자들의 노력들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복음 전도가 열매 맺는데 있어서 크게 방해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역사에 대해 잘 알고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필그림 선조들과 미국 식민주의자들에게 대한 경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칼빈 가르침의 확장 비기독교인 행정당국자가 대회 소집할 수 있어

교회와 국가 사이에서 혼란 겪는 것은 참된 복음전도에 큰 장애물

지라도 그 의롭고 법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 때문에 백성들이 그 행정 당국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행정 당국자들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교황이 자기 지배 아래에 있는 이들에 대한 관찰권을 가지거나 자기 백성들 중 어느 사람이든지 관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칼빈의 가르침의 확장이었으며 존 녹스(John Knox)도 그렇게 가르쳤다. 존 녹스는 제네바에서 수년간 칼빈으로부터 그것을 배워 마음에 품고 있다가 스코틀랜드에 소개했다. 그를 추종하던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나중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된다. 그 두 사람이 한번은 만나 그 문제들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다. 멜빌은 왕이 너무나 많은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오만을 부리고 있으며 교회 일에 너무 많이 상관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위의

을 살펴보았다.

2. 교회와 국가: 청교도와 관련된 자유교회와 제도교회

1) 교회와 국가와의 분명한 관계인식의 필요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고 흥미로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개 교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내용 안에 늘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죄악 가운데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이런 모 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건다면 우리 자신이 로마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나중에는 자기가 모르게 로마교회에 들어가 있음을 의의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무지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생각할 마음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그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며,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초기부터 영국 국교회 안에는 성취된 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교리적인 문제 중에서 특별히 구원의 교리는 잘 다루어졌지만, 교회의 예배의식이나 교회의 정치 문제는 실패했다고 느꼈다. 이들이 청교도들로 알려졌는데 이는 그들이 교회가 계속 철저히 정화되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교도들은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은 갈수록 엘리자베스 여왕 식의 왕위 계승과 국교회에 대하여 더 불안해하고 더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내심을 밖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면 핍박을 받게 되고 투옥되거나 죽음을 당하였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화란으로 피하고 싶어 했으며, 나중에는 신천지를 허락받았으며 또한 교회를 형성하였다.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 선조들이 1626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것도 바로 이런 핍박의 결과 때문이었다.

younsklee@hotmail.com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수)

끊임없는 성장

고든 맥도날드는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서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묻는다. 그리고 성장과 은혜로 가득한 노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년을 위한 성장계획을 세우라고 권면한다. 노년을 위한 성장계획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결사같은 남아지나 우리의 속사탕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노년기의 과제 같다. 내가 젊었던 시절에는 인격과 신앙의 성숙은 나이와 함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서른 살이 채 되기 전에 권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오가는 대화를 들으며 적잖이 놀라고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권사님들은 연세도 드셨고 믿음도 있는 분들이니까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성숙하시고 삶의 모든 면에 모범이 되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들의 대화가 주로 옷 자랑, 외모 치장에 머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권사님들의 나이에 이르러 보니 인격의 성숙이 나이와 비례할 것이라는 내 기대가 얼마나 단순한 생각이었는지 웃음이 난다. 나이가 들면 인격이 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인격의 성숙은 나이와도, 신앙생활의 연륜과도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평생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왔는데 미성숙한 인격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지식이나 주님 사랑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많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당사자는 자기가 지닌 인격적, 신앙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마음에는 해결하지 못한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짐이 있다면 답답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을 살아온 경험 때문에 더 고집이 세어진 노인, 어느 장소에서든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노인의 모습은 그런 아픔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학생들에게 나이 들어서 어떤 노인이 되고 싶든 물어보면 공통적인 대답은 고집스러운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생을 살면서도 고치지 못한 버릇들, 성품을 어떻게 늦은 나이에 바꿀 수 있을까? 나이가 50이 넘으면 변화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개인적, 공동체적 교육과 훈련이 늦은 나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래서 인자 요즈음에는 노인들을 위한 영성사역을 자주 생각해본다.

원만한 이만교회는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다양한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보면 기본적인 예배 외에 컴퓨터 기초지식, 셀폰 사용법, 기초 영어회화 등 삶에 유익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라인댄싱, 아웃팅 등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죽음을 맞이할 준비,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이 땅에서의 관계를 돌아보고 화해가 필요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 등 노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교회는 별로 없지 않다.

물론 생활에 유익한 정보도 중요하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그러나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세우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노인 성품학교나 영성학교를 열어서 꾸준한 인격적, 신앙적 성장을 도와드리다면 어떨까. 구비 구비 지나온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하였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자손들과 인생의 후배들에게 들려주며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믿음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성장하는 노인들의 모임 말이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성장의 필요나 의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고자 나아가는 노인이 되도록 교회는 도와드려야 할 것이다.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져가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노년기를 그리며 고든 맥도날드가 쓴 사명 선언문을 소개한다.

"내가 가는 곳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데 삶의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소망과 격려와 열정과 우정과 섬김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한 사람으로서 내 영혼이 거룩함과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라가려 한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8:45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 28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www.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b.org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9:30(토) Tel: (917) 733-7387 45-16 162 St., Flushing, NY 11358 chungkile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461-2810(Fax 겸용), (917) 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ofny.org Tel: (516) 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 746-7577, Fax: (718) 38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tion.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 342-9194, Fax: (201) 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창립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 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215-29 42 Ave., Bayshore, NY 11361	빛과소망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전 10: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창립년예배 오후 3: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 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영양예배: 오후 5:00 금요일예배: 오후 1:00 Tel: (718) 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퀸즈한인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 672-1150 Fax: (718) 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Fax: (323) 665-0046 N.Y.: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Í-3A0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기도: 저녁 9:00 714호주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학생: 오전 9:30(월-토) Tel & Fax: (562) 556-78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808) 947-5252, Fax: (808) 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4번시 설교) Tel: (52) 333-3507-4111 E-mail: haninkr@hanin.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정금같이 나오리라



박성규 목사 (주세우교회)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생의 주인이십니다.

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가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생의 주인이십니다."

을 하고 있었으나 하나는 투박한 채 불포함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왕은 관리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관리인은 "폐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또 하나는 불에 구워지지 않았습니니다. 시련은 인생을 윤기있게 하며 생동감있게 하며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전시해 놓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을 통해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며 사업가인 "내셔널"상표의 대표 자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95세 나이로 운명할 때까지 570개 기업에 종업원 13만 여명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그에게 "회장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공을 이루셨습니까?" 물었을 때, "나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네. 그 3가지는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라네."

알았다네. 나는 내게 주어진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고 항상 감사한다네."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불행한 환경과 시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13년간 불시련을 통해 연단 받고 영광의 자리에 세워진 믿음의 승리자의 대표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는 장면은 참으로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까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

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창45:5-8)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의 거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방성대곡하며 눈물로 풀어주는 요셉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2년 건축 용자금을 갚지 못해 신축 건물에서 쫓겨나면서 시작된 나성열린문교회와 ECCU가 소송전에서 나성열린문교회 최종 패소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왼쪽은 구나성열린문교회(하나님나라의만국교회), 우측은 최종판결문

나성열린문교회, 최종 패소판결 받아 LA법원, 교회측 제기 9가지 사안 모두 기각

지난 2012년 건축 용자금을 갚지 못해 신축 건물에서 쫓겨나면서 시작된 나성열린문교회(담임목사 박현성) 소송전이 은행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4일 나성열린문교회가 기독교복음신용조합(Evangelical Christian Credit

Union, ECCU)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랜돌프 해머 판사는 지난달 18일에 열린 재판에서 나성열린문교회가 제기한 ECCU측의 사기 및 부당차압 등의 사안을 모두 기각했다. 해머 판사는 교회 측이 차압명백

당시 '권리포기증서'(QUITCLAIM DEED) 방식으로 교회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으므로 차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총 9가지 소송 사유에 대해 모두 ECCU측의 손을 들어줬다. 나성열린문교회 사태는 지난 2012년 신축 예비당 건축 용자를 맡은 ECCU가, 교회가 밀린 대금을 갚지 않는다면 신축 건물과 구 예비당 등을 차압한 뒤, 2012년 9월 나성열린문교회를 강제 퇴거 조치하면서 시작됐다.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 홍보 기자회견에서 양춘길 목사(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 개최 10월 5일(금)-7일(주), 필그림선교센터

미셔널 처치 컨퍼런스가 10월 5일(금)부터 7일(주)까지 개최된다.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는 9월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뉴저지 티넥 필그림선교센터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는 5일(금) 오전과 오후에는 목회자, 6일(토) 오전과 오후에는 평신도, 7일(주) 오후 3시에는 교회 제직들을 위한 포럼이 진행된다. 선교부흥회는 5일(금) 저녁 8시와 6일(토) 저녁 7시에 드와이트 모로우 고등학교에서 열리며 누구

나 참가할 수 있다. 또 국내와 해외 선교 그리고 선교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며 다양한 선교를 위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다. 양춘길 목사는 한인이민교회가 쇠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미셔널처치 운동을 소개하며 △영향구원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교회들이 상부상조하고 협력해야 한다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위에 하나님을 이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영혼구원을 위해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등 미셔널처치의 핵심가치를 강조했다. 강사는 이광길 총장과 이상훈 교수, 양춘길 목사가 맡는다. 이광길 교수는 현재 SOMA 대학교 총장으로 풀러신학교 한국어 학부의 성장과 부흥을 이끈 바 있다. 세계적 리더십 권위자인 로버트 J. 클린톤의 제자로서 많은 목회자를 멘토링하며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이상훈 교수는 월드미션대학교 WMU-SOMA D.Min 프로그램의 디렉터로서,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다. "리폼처치", "처치시프트", "리뉴처치",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공제)" 등의 저서 등 활발한 집필 활동과 다양한 강의와 세미나, 포럼 등을 통해 미셔널처치 운동을 이끌고 있는 선교학자이며 미셔널 처치 운동의 영향력 있는 리더 중의 한명이다. 양춘길 목사는 첫 컨퍼런스 후 지속적인 세미나와 후속모임을 통해 각 교회가 협력하고 성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도록 하는 훈련과 단기선교훈련, 중장기선교사 훈련 등을 지역 이민교회와 다민족교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필그림선교교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부총장 이종호 박사 임명 취임감사예배 7일(주) 오후 4시 LA연합감리교회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총장 제프리 칸, 이하 CST)는 2018년 10월 1일자로 이종호 박사를 대외협력 부총장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부총장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에서 마케팅을 가르쳤고 경영 및 마케팅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왔던 경험을 인정받아 지난 7월에 학교 재단 이사회와 청빙위원회의 결정으로 40여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출됐다. 신임 부총장은 "클레어몬트 신학교는 미국의 명문 신학교로서 그동안 큰 역할을 감당해왔는데, 앞으

로도 신학교가 온전하게 지속 성장할 때 신학교육의 향상과 목회자 양성이라는 두 트랙을 발전적으로 지향해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부총장 이종호 교수

해 대외적으로 기금모금 운동에 힘쓰고 그 기금을 바탕으로 많은 우수한 한인 신학생들이 클레어몬트로 입학해 학비 걱정 없이 미래의 경건하고 실력 있는 목회자로 배출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7일(주) 오후 4시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본격적인 부총장 행보에 들어가 신학교와 한인교회를 잇는 교량역할과 재정적 후원의 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총장은 우선 100여명으로 구성된 목회자들과 평신도 중심으로 대학 발전위원회(위원장 김웅민 목사)를 출범해 1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조성할 목표를 갖고 있다. (기사제공: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기독교의료상조회 박도원 목사 일행이 뉴욕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기독교의료상조회, 뉴욕서 사업설명회 보험 아닌 기독교 의료비 지원 단체

지난 96년부터 시카고에서 시작한 기독교의료상조회(CMM, 대표 박도원 목사)가 지난 8월부터 뉴욕일원 직원으로 워화조 씨를 고용하고 9월 24일 오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뉴욕 기자들을 초청했다. 이날 다대 박도원 목사와 기독교의료상조회 스태프들이 뉴욕을 방문해 기독교의료상조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도원 목사는 로고스선교회 회장으로 기독교의료상조회 외에 크리스찬저널과 라모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73년 도미, 1976년 로고스선교회를 설립하고 문서선교사역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월간 로고스 소식지를 발행했으며, 1981년 '크리스찬저널'로 제호를 바꾸고 2013년 8월까지 주간으로 신문을 발행했으며, 현재는 월간 신문과 인터넷(kcjlogos.org)을 통해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박 목사는 가족이 의료보험을 없어 고민하던 중 미국잡지를 번역하다가 미국기관의 의료비 나눔사역을 알게 돼 직접 연락해 자세히 알아보고 보도했는데 독자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다. 직접 연락한 독자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 비난이 신문에 돌아왔다. 그래서 박도원 목사는 더 관련 정보를 찾

아 오하이오에 있는 CHM이라는 미국기관을 찾게 됐다. 원래 의료상조회 원조는 1950년대의 선교사 자녀들이 아프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기 힘들기에 몇몇이 돈을 모아서 웨어링 미니스트리로 시작한 것이다. 미국에는 대표적인 기독교의료상조회 3개 기관이 플로리다, 오하이오, 알리노이에 있다. 그동안 별로 미국사회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오바마케어가 2014년 시작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주로 백인들만을 위해 운영하다가 소수민족 중에는 처음으로 CMM이 시작해 현재 활동 회원은 4만 명이 된다. 워화조 씨는 "지난해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 금액은 6백만 달러가 넘었다"며 "중요한 것은 CMM은 보험이 아니라 상호회이어기에 일반 회사 보험료에 비해 매우 저렴해 40달러부터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또 지역도 미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에서도 치료비를 지원하며 현재도 계속 프로그램을 증진시키고 있다. 박도원 목사는 "교회에 환자가 생기면 안타까운 것은 기도는 얼마든지 하지만 재정적으로 도울 수 없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세상을 살며 물질도 필요하다. 우리는 물질로 돕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달라고 환자명단을 작성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소개했다. 자세한 정보는 구글에서 기독교의료상조회(cmmlogos.org)를 검색하면 웹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 (유원정 기자)

10월 1-5일 7명 과테말라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단기선교 파송예배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뉴욕나눔의집에서 9월 정기예배 및 단기선교 파송예배를 드렸다. 이번 단기선교는 오는 10월 1일(월) 오전 2시경 출발해 5일(금) 밤 돌아오게 되며 회장 이하 7명이 가게 된다. 선교지는 과테말라(장경순 박운영 선교사). 예배는 전희수 목사(사무총장) 인도로 기도 안경순 목사, 특송 남상보 집사, 설교 박성원 목사, 합심기도, 단기선교 파송기도, 축도 권금주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성원 목사(국내선교국장, 뉴욕나눔의집 대표)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시146:1-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본문은 고레스 왕의 성전

재건 허락을 받고 성전 건축을 하러가는 내용인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게 된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찬양하는 이유는 내 죄를 씻어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나눔의집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과정 등 동숙자 사역에 대해 강조했다. 유상열 회장의 개회 기도 후 시작된 회의에서 전희수 사무총장은 "이사장도 없이 진행되는 기아대책은 받은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역단체"라며 "매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교팀원들은 회의 후에 모임을 갖고 최종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18년 10월 11일 행사로 11월 25일 후원자의 밥을 남겨놓고 있다. 한편 10월 정기예배는 24일(수) 오전 10시30분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린다. 동 기구의 주요 사역인 아동후원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 breadngospel.org를 참조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 국제기아대책 기구 9월 월례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교계 게시판



미드웨스트대학교 특별 장학혜택 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가 M. Div와 D.Min 학위 과정 입학자 20명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유효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등록자에 한함. 동 대학교는 온라인으로도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학위과정은 M. Div(96학점), D.Min(39학점), MBA(48학점), Doctor of Leadership(48학점), Ph.D(60학점). 항공대학, 경영대학(원), 음악대학(원), 교육대학원, 상담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신학대학원 등이 오픈돼 있다. 웹사이트 www.midwest.edu
▲문의: (636)327-4645.

미셔널 컨퍼런스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컨퍼런스가 10월 5일(금)부터 7일(주)까지 열린다. 집회는 금요일은 저녁 8시, 토요일은 저녁 7시, 장소는 뉴저지 드와이트 모로우 고등학교. 컨퍼런스는 이광길 총장(SOMA University), 이상훈 교수(풀러, 소마 겸임교수),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회)를 강사로 필그림선교회에서 열린다. 강의 일정은 △목회자 포럼: 5일 오전 10시-오후 3시 △평신도 포럼: 6일 오전 10시-오후 3시 △교회제제 포럼: 7일 오후 3시
▲문의: (201)461-1225

'가정사역, 자녀교육 컨퍼런스'

낮은올타리USA(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버지니아, DC 지역 '가정사역, 자녀교육 컨퍼런스'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자녀"이라는 주제로 10월 24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워싱턴새한장로교회(담임 노대준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조희창 목사로 △회복과 생명력-축복의 통로로 서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커뮤니케이션 △4차 산업혁명시대, 다음세대의 비전과 직업 △스마트폰 시대 중독 다스리기, 미디어 교육전략 등 4섹션으로 나눠 강의한다. 목회자, 사모, 사역자, 부모, 교사 등 가정사역과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703)282-4649, 434-0363

KMCA 2018년 뉴욕서지방 선교대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KMCA) 2018년 뉴욕서지방 선교대회가 10월 5일(금) 오후 8시, 6일(토) 오후 8시, 7일(주) 오후 7시 뉴저지 가나안교회(80 Commerce Way, Hackensack)에서 열린다. "신앙을 반석 위에! 인생을 반석 위에!"라는 주제로 강사는 충주제일교회 담임 이병우 감독(기갑 총부연회 감독).
▲문의: (201)805-9191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제 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 세대를 본 받지 말라”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제 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뉴욕리폼드신학대학(원) (NYRBS) 제 7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23일 저녁 5시30분 열려 총 4명이 졸업했다. 본교가 위치한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에서 열린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은 학장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김승진 목사(교수), 말씀선포 강신용 목사(노회장), 헌금기도 및 축도 최호의 목사(총무처장) 순서로 진행했다.

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권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딤후6:11-12a). 예수님만을 몰 모델로 삼아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권면했다.

박법렬 졸업생 대표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으로 소명 받은 일꾼, 청지기 사명자로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한다"며 "4년전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가졌던 구원의 문제, 중생의 문제, 세계관 등 여러 혼란한 주제들을 개혁주의의 신학 위에서 정립하고 훈련받아 졸업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좁은 길로 가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답했다.

동 신학교는 2004년 1월 뉴욕주 정부 교육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 단체로 등록한 신학 교육기관으로 예정(합동총신측) 미주동부노회 초대 노회장 유상열 목사가 운영에 관한 권한을 총회 및 노회로부터 위임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9년도 제 1회 졸업식에서 4명이 졸업한 후 이번 7회 졸업식까지 총 26명이 졸업했다. 또 2007년도 도미니카공화국에 부교를 설립하고 학석사 총 24명을 배출했으며 아시아지역 신학교와 2012년 결연을 맺고 학석사 12명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목회학 석사: 박법렬, 도국진 △교회음악 석사: 조복만 △기독교상담학 석사 최미하.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체육대회 참석자들이 경기에 앞서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길...”

뉴욕목사회 제 46회기 가을 체육대회

제46회기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 가을 체육대회가 9월 20일 오전 엘리 폰드 파크에서 열렸다.

운동 경기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무 이준성 목사 인도로, 기도 감사 김연규 목사, 말씀 회장 문석호 목사, 축도 교협회장 이만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했다.

문석호 목사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을 본문으로 "목회자의 강건"을 강조했다.

안창의 목사의 오찬 기도가 있었으며 점심식사 후 족구와 발야구 등 경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뿐 아니라 회원들 간의 대화를 통해 모처럼 즐거운 친교시간을 가졌으며 목사회는 참가한 회원들에게 선물권을 증정했다.

<유원정 기자>



카네기홀에서 열린 CBSN 세계찬양대합창제에서 모든 출연진들이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다.

순조로운 진행과 협력 돋보여

CBSN 세계찬양대합창제 카네기홀 공연 성료

2018 세계찬양대합창제 카네기홀 공연이 지난 23일 저녁 예정대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준비위원장 양민석 목사는 개회기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카네기홀에 임하게 해 달라"며 "슬픔이 변해 춤이 되게 해줄 것"을 간구했다.

합창제는 고성옥 전 미주기독교 방송 부장의 사회로 첫 무대는 서울살롬여성합창단(지휘 김창재)이 문을 열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를 불렀다.

두 번째는 아가페오랄(지휘 강옥민)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외지리라 구원의 소식!'을 불렀다. 아가페오랄은 카네기합창제를 마친 후에 캐나다 원주민 선교도 하게 된다.

예성사모합창단(지휘 오세영)이 세 번째 출연해 '깨뜨린 옥판', '그가'를 불렀으며, 찬양교회합창단/어린이합창단(지휘 이선민)은 네 번째 무대를 장식했다.

원프로젝트 남성합창단(지휘 김성균)은 오펜리아 '그 별길 10불입니다'와 '주님찬양하리라'를 노래했

다. 이어 미주여성교탈(오성애 지휘)은 '하나님께 영광' 성령의 기쁨을 받으소서'를 불렀다.

일곱 번째 팀은 이번 합창제를 주최한 CBSN 뉴욕기독교방송합창단(지휘 제시유)으로 단원들은 뉴욕교회연합단원들과 함께 구성됐다. '주님나라 이루게 하소서', '마른 뼈들을 불렀으며 이어 뉴저지목사 사모합창단(지휘 장미자)이 '내영혼이 은총입어'와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을 불렀다.

이어 소프라노 최정원(피아노 백승화)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라'를 불렀으며,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지휘 안두현)는 '나같은 죄인 살리신'을 합주한 후에 트럼펫 이한결 군의 협연으로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연주했다.

피날레는 연합합창단(지휘 장미자)의 '할렐루야'로 1천 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일어서서 마무리했다. 하연행 목사는 히브리어 원어로 축도를 하며 참여한 모든 이들과 뉴요커들에게 축복을 선포했다. (기사제공: CBSN)



뉴욕원로목사회 9월 월례 예배 참석자들이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9월 월례 예배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회장 정익수 목사) 9월 월례 예배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든든교회(담임 남일현 목사)에서 열렸다.

임인환 목사의 사회로 드린 예배에서 남일현 목사는 누가복음 2장 25-38절을 본문으로 "민감함과 민첩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남 목사는 "시므온과 안나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에 감동됐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성전 중심이다"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었다"며 "원로목사회 회원들이 몸의 민첩함을 바라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한 어른들이 되어 여생을 뉴욕과 후배 목회자들, 교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신임회장 김영환 목사(NY), 송재현 목사(NJ) 유임

미남침례회 뉴욕/뉴저지 한인지방회 정기총회

뉴저지 지방회

미남침례회 뉴저지한인지방회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들을 유임시켰다.

8개 교회가 소속돼 있는 뉴저지 지방회의 임원은 △회장 송재현 목사(주사랑교회) △총무 김주헌 목사(지구촌 교회) △회계 윤양필 목사(라이프 교회) △교육부장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등이다.

성영호 목사는 7년전 개척한 다리농교회 목회를 마치고 한국 극동방송 양육국장직으로 사역을 옮겼다.

성 목사는 "새로운 부르심에 소명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며 "다리농교회 사역을 잇을 수 없지만 지금은 잠잠히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옳다고 믿기에 가족들도 이곳에 남겨두고 순종의 길을 가려 한다"고 인사했다.

한편 뉴저지지방회는 처음으로 침례회 연합부흥성회를 'Cheer Up Together!!' 주제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했다.

한국 지구촌교회 진재혁 목사를 강사로 21일 뉴저지구촌교회, 22일 뉴저지 등대교회, 23일뉴저지구촌교회에서 각각 열었다.

뉴욕지방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가 제35회 정기총회가 9월 18일 오전 10시 퀸즈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김영환 목사 △부회장 박춘수 목사 △총무 신은철 목사 △서기 안승백 목사 △회계 한필상 목사 △청소년 노기승 목사 등을 선출했다.

이날 총무보고를 통해 지난 회기(회장 박진하 목사)의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2017년 9월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 임원회 △10월 사모위 로회 △12월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 성탄 및 송년 모임 △2018년 1월 시취위원회 내규 수정-7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연장자 순으로 3년조를 운영하되 윤번제로

한다 △4월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임원회 △5월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야외예배 △8월 뉴욕과 뉴저지 지방회 연합목회자가족수양회.

선교분과는 △2개 개척교회(태초교회와 충성교회) 지원 포함 활동을 보고했다.

교육분과는 △2월 목회자 세미나(방직각 목사 초청 "영적 지도자의 자기 갱신" 주제로), 목회자 자녀 장학금 지급(2명) △8월 뉴욕과 뉴저지 연합 목회자가족수양회는 최영이, 강승수, 박근재, 김영삼 목사 등이 강사로 섰다.

청소년분과는 △7월 파인힐 수양관에서 열린 챌린지 청소년 연합수련회에 청소년 85명 등 16교회 133명이 참가했다고 보고했다.

뉴욕지방회에는 16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공개 토크쇼 "프레스 ABC"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철 아멘넷 대표, 김동욱 복음뉴스 대표, 김원기 목사, 이병준 목사, 임은숙 CSN 부사장.

“교계선거 제도의 현황과 방향” 주제

공개 토크쇼 “프레스 ABC” 첫 방송

아멘넷(대표 이종철), 복음뉴스(발행인 김동욱), CSN(사장 한은경) 등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 토크쇼 "프레스 ABC"가 19일 오전 11시 첫 방송을 시작했다.

예고한대로 9월 방송은 교계의 정기총회 계절을 맞아 "교계선거 제도의 현황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임은숙 CSN 부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아멘넷 이종철 대표와 복음뉴스 김동욱 발행인 외에 김원기 목사(전 뉴욕교협 회장)와 이병준 목사(전 뉴저지교협 회장)가 토론자로 초청됐다.

이날 토론을 통해 △뉴욕과 뉴저지 교계선거의 현황 및 개선 방향성 △교계 단체장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하고 뽑지 말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가 진행됐다.

본지는 "프레스 ABC"의 자세한 내용을 다음호(1701호)에 정리해 게재하려 한다.

방송은 오전 11시부터 유튜브로 생방송됐으며 현재는 아멘넷(usaamen.net)과 복음뉴스(bogumnews.com) 링크로 이동하면 방송을 볼 수 있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코로나지역 저소득층 아동 위한 콘서트

문화 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19일 퀸즈 코로나 지역 저소득층 아동(3-4세)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다. 이 공연은 이노비의 뉴욕차일드센터의 코로나 어린이 센터에서의 첫 번째 공연이다.

이 날 공연은 활발히 이노비 공연을 통해 봉사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오경철이 음악감독을 맡아 20분간 2회, 총 40여명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10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오경철 씨 외에도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매직플루트 등의 오페라에서 주역을 해온 메조소프라노 김영신과 맨레튼 음대와 NYU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을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지슬이 함께했다.

이번 공연은 뉴욕차일드센터와 이노비의 협력으로 이뤄진 공연으로 뉴욕나눔재단과 윌리엄슨문자오컬트 파운데이션이 후원했다.

▲공연/후원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기사제공: 이노비)

11개 팀 출연...하나님사랑 이웃사랑 실천 제12회 남가주장로협의회 사랑의 찬양제 성료



제12회 남가주 장로협의회 사랑의 찬양제에서 찬양하는 미주여성코랄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고 임동선 목사 추모 2주기 음악회에서 LAKMA 챔버콰이어 스트링 앙상블이 정중들과 함께 합창하고 있다

고 임동선 목사 추모 2주기

LAKMA 챔버콰이어 스트링 앙상블 음악회

고 임동선 목사 추모 2주기 LAKMA 챔버콰이어 스트링 앙상블 음악회가 21일 오후 7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렸다.

링앙상블의 연주에 맞춰 '하나님의 사랑', '주 보혈 나 정결케 하고', '내 평생에 가는길' 등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신선미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불렀다.

이날 라크마 챔버 콰이어는 스트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35회 연례 기금 모금 만찬에서 카니정조 한인가정상담소장이 환영사를 전하고있다

현장 기부, 경매로 약25만달러 모금

한인가정상담소 35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 성황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제35회 연례 기금모금 만찬(KFAM's 35th Anniversary Fundraising Gala)이 19일 오후 6시30분 태글리안 컨플렉스에서 51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어진 영예의 인물(Honoree) 수상에는 한인가정상담소 발전에 공헌을 한 벤자민홍 전 나라는행장, 박병철 예비레스트 트레이딩회사 회장, 제인정 '제인정법률사무소' 대표가 선정됐다.

이날 만찬에서는 15분간 이어진 기부금 후원과 사일런 옥션(Silent Auction) 등을 통해 약 25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5년간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고, 한인사회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후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한인 및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2006년 LA 일가족 사망사건이라는 가족 참사의 충격을 딛고 성장한 김빛나(28·영문명 Binna Kim) 씨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눠 따뜻한 박수를 받았다.

(박준호 기자)

예장 보수합동국제총회 목사안수예배

김재호 강도사 등 6명 목사안수 받아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국제총회(총회장 신승훈 목사) 목사안수예배가 22일 오후 7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러진 영예의 인물(Honoree) 수상에는 한인가정상담소 발전에 공헌을 한 벤자민홍 전 나라는행장, 박병철 예비레스트 트레이딩회사 회장, 제인정 '제인정법률사무소' 대표가 선정됐다.

신승훈 목사 집례로 열린 이날 안수식은 서약, 안수기도, 약수례, 착의식, 선포 순으로 이어졌고 은혜한인교회 은혜성가대의 특송, 아수증 수여, 꽃다발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연회는 권성주 한미애국연합회 이사, 뷰에나 파키의원 후보 박영선(Sunny Park) 변호사, 천지인 전영선 사장, 오렌지카운티 재향군인회 김명성 부회장, 임해빈 KCCD 회장, 그리고 많은 검사 변호사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김광신 목사(국제총회 증경총회장, GMI총재)가 권면했으며 한기홍 목사와 최홍주 목사(국제총회 부총회장, 미주노회장, 에브리데이교회 담임)가 축사하고 박민재 목사가 안수자 대표로 답사를, 강영철 목사(GMI 선교사 훈련원장)가 축도했다.

LA시의원 후보인 그레이스유(Grace Yoo)와 거주상원 후보인 피터최(Peter Choi)가 한국인의 정치력 발돋움 비전을 환영사로 인사했다.

한편 이날 안수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종욱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 휴리랜드성경연구소 대표) 인도로 심장설 목사(샌디에고 갈보리교회 담임)가 기도하고, 김종욱

행사의 메인이벤트 첫 스피커인 거주상원 후보인 피터최가 LA영사

(박준호 기자)



예장보수합동 국제총회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들과 배우자들이 순서맡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기도하고 민중기 목사(충현선교교회)가 '찬송 골짜기의 승리'(대하 20:21-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제2부 찬양제는 김영균 장로(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충현선교교회(지휘: 이삼열), 경신동문코러스(지휘: 한효정), 나성성결교회(지휘: 클라라 김), 대광OB 코랄(지휘: 강민석), 미주여성코랄(지휘: 오성애), 오렌지미션과이어(지휘: 장진영), 송실OB 코랄(지휘: 이영두),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여성찬양대(지휘: 이은파), 남가주장로성가단(지휘: 조성환), 목사 장로 부부찬양단(지휘: 이재경), 남가주사랑의교회(지휘: 조성환) 등 11개 팀이 참여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정리: 박준호 기자)



오네시모선교회 제18회 후원의 밤 행사에서 K타운 재즈밴드가 공연하고 있다

"하나님나라 꿈 품게 되는 음악회로"

오네시모선교회 제18회 후원의 밤 성황

오네시모선교회(대표 김석기 목사)는 제 18회 후원의 밤 행사를 22일 오후 6시 부에나파크 해리데지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석기 목사는 "세상에 약한 자들을 들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낯선 땅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한 가닥 줄이 돼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며 "한해 한해 주님 앞에 올곧은 마음으로 동역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음악회가 아직도 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

는 가족들에게는 주님을 다시금 붙잡는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게 되는 음악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심현식 장로(오네시모선교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후원의 밤은 1부 만찬에 이어 2부 3CS 트리오 연주, 테너 오위영 목사, K타운 재즈밴드가 무대에 올라 은혜롭고 즐거운 공연을 펼쳤으며 제이슨리 형제의 간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정은표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행사는 정은표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앵코(AMCO)재단 주관 LA 한인타운 'THE LAW in LEADERSHIP' 정치 리더십 격려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피터최, 저지 베일리, 그레이스유, 김희창 강사

AMCO재단, LA한인타운 정치리더십 격려 포럼

앵코(AMCO)재단이 주관한 LA 한인타운 'THE LAW in LEADERSHIP' 정치 리더십 격려 포럼이 22일 오후 1시30분 아로마센터 5층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회는 권성주 한미애국연합회 이사, 뷰에나 파키의원 후보 박영선(Sunny Park) 변호사, 천지인 전영선 사장, 오렌지카운티 재향군인회 김명성 부회장, 임해빈 KCCD 회장, 그리고 많은 검사 변호사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회는 권성주 한미애국연합회 이사, 뷰에나 파키의원 후보 박영선(Sunny Park) 변호사, 천지인 전영선 사장, 오렌지카운티 재향군인회 김명성 부회장, 임해빈 KCCD 회장, 그리고 많은 검사 변호사들과 사회 지도급 인사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둘째 메인 연사인 아토니 제너럴(가주법무장관) 후보인 저지 베일리(Judge Bailey)는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원칙이 있는 리더십과 한인사회의 리더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LA 시의원 후보인 그레이스유(Grace Yoo)는 LA 한인타운의 의견이 주류사회에 영향력 있게 전달되기를 염원하며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LA시의원 후보인 그레이스유(Grace Yoo)와 거주상원 후보인 피터최(Peter Choi)가 한국인의 정치력 발돋움 비전을 환영사로 인사했다.

마지막 특별 연사로 초청된 트리니티대학교 총장이며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대표인 김희창 박사가 의사소통 문화관계를 리더십과 연결 지으며 화면 자료 제공을 통해 'Intercultural Leadership(교차문화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민자가 주류사회 정치 리더십을 지니려면 비언어적 요소와 표정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93%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문자로 전달되는 문화를 파고 들어가는 리더십의 현대적 문화원리를 강조했다.

(기사제공: 앵코(AMCO)재단)

서부교계 게시판



2018 밀알의 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은 2018 '장애인장학복지기금' 모금을 위한 "밀알의 밤"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 "소통(엡 3:17)"이라는 주제로 한국 최고의 소통 전문가 김창욱 교수(김창욱휴먼컴퍼니 대표, 김창욱퍼포먼스스튜디오연구소 대표, 서울여자대학교 겸임교수)와 자폐 피아니스트 '정수진' 자매를 메인게스트로 초청한다. 일정은 △12일(금) 오후 7시30분 ANC은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13일(토) 오후 7시 남가주새누리교회(구 로스엔젤스한인침례교회, 담임 박성근 목사) △14일(주)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오 목사)이며 입장권은 15달러(1인).

▲문의: (562)229-0001, smilal@milalmission.com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 창립12주년 감사예배

사우스베이부모님선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예배가 10월 14일(주) 오후 5시 성서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 1655 W. Marine Ave, Gardena)에서 개최된다. 이날 권오달 목사(에덴장로교회 담임, 해외대신총회 미주노회 경경노회장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한다.

▲문의: (310)515-7207, (562)417-4869

무료건강박람회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는 USC약대 한인학생회 주주로 무료 건강박람회를 29일(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 교회 체육관에서 갖는다. 이번 박람회는 당뇨, 콜레스테롤, 체지방, 골다공증, 혈압, 독감예방접종을 다루며 당뇨 및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당일 공복으로 참석해야 한다.

▲문의: (213)383-4982

남가주사랑의교회 2018년 영적각성집회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2018년 영적각성집회를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개최한다. 이번 집회 강사는 노진준 목사(전길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28일(금) 오후 7시30분, 29일(토) 오전 6시30분, 오후 7시, 30일(주) 1-4부 예배다.

▲문의: (714)772-7777

연세콰이어 제13회 정기연주회

연세콰이어(단장 송재홍, 지휘 이정욱) 제13회 정기연주회가 9월 29일(토)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테너 강무림 교수(연세대 음대학장)이 특별 초청된다.

▲문의: (213)761-0470, (323)333-6634

유니온교회 설립 38주년 선교축제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는 설립 38주년을 맞아 9월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선교축제를 개최한다. "예수님의 교회론"(요한복음 17장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교축제 강사는 정민영 선교사(전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부대표)이며 일정은 28일(금) 오후 8시, 29일(토) 오전 6시30분, 오후 7시, 주일 1, 3부 예배.

▲문의: (626)858-8300

선한청지기교회 설립27주년 감사 부흥사경회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교회 설립 27주년 감사부흥사경회를 '위기와 절망에서도 쫓겨는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강사는 나혜주 목사(해운도 소명교회)이며 일정은 9월 30일(주) 1-4부 예배, 10월 3일(수)-6일(토) 오후 7시30분.

▲문의: (626)913-6611

주님의영광교회 김장환 목사초청 1일 말씀성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김장환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초청 1일 말씀성회를 30일(주) 2부(오전 10시30분), 3부(오후 1시) 예배시간에 갖는다.

▲문의: (213)749-4500

OKC 황교안 전도사 신앙 간증집회

오렌지한인교회(담임 김윤진 목사)는 황교안 전도사(전 총리) 신앙 간증집회를 29일(토) 오후 7시에 갖는다.

▲문의: (714)871-8320

월서연합감리교회 신영각 담임목사 취임식

월서연합감리교회는 신영각 담임목사 취임식을 30일(주) 2부 예배 시간인 오후 12시에 갖는다.

▲문의: (323)931-9133



LA노숙자를 돕기 위한 영문저서 2권(사진우측) 합동 출판기념회에서 한인 여성으로 미군 최고위직에 오른 사론 던버 공군소장이 강사로 나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LA노숙자 돕기 영문저서 2권 합동출판기념회

'고공비행' (채스터장) '애국지사의 꿈' (민병용)

LA노숙자를 돕기 위한 영문저서 2권 합동 출판기념회가 채스터장 박사와 한인역사박물관(관장 민병용) 주최로 22일 오후 2시 용수산에서 열렸다.

강사로 나서 특별강연을 했다. 그리고 허버트 스미스 LA미션 CEO, 랄프안 도산 안창호 선생 삼남, 박찬호 회장(경기고동창회), 통일교 육위원 LA협의회 조봉남 회장이 축사했으며 채스터장 박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채스터장 박사의 역경을 이기고 주류사회에 우뚝 선 이야기를 담은 '고공비행'과 민병용 관장의 애국지사 299명의 미주독립운동 이야기의 영문판 '애국지사의 꿈' 출판을 기념해 열렸다.

장 박사는 그의 자서전 '고공비행'을 출판하며 휴리스 지원단체 LA미션에 1만 달러 후원을 약속했고 지난 8월 첫 번째 기금으로 3천 달러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한인 여성으로 미군 최고위직에 오른 사론 던버 공군소장이

(박준호 기자)

2018 교단 총회

“교회·성도의 본질 회복” 예장합신 제103회 총회 개회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사람이 사라지면 부정적 비평가가 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은 18일 인천 중구 송월장로교회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직전 총회장 박삼일 목사는 “예수님은 불법이 성할 때 사람이 시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실로 말세에 가장 필요한 은사는 사랑이요, 우리가 모두 겸손히 고개 숙여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목회현장과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우리가 임하는

싸움터는 역사 속 가장 험하고 치열한 전쟁터라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우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만 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103회회가 그 옛날 예루살렘 공회처럼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103회 총회를 섬길 총회장에는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홍동필(전 주세중앙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홍 신임 총회장은 목사 총대 135명, 장로 총대 61명 등 총 19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효표 중 182표를 얻었다.

홍 신임 총회장은 “지금 우리는 심각한 위기와 위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적 원칙이 분명함에도 원칙을 무시시키고 진리에서 이탈하는 현실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든다”며 “신앙 없음과 거짓으로 가변 결국 망하고 설 자리가 없게 되며 비참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총회에는 18개의 현의안이 상정됐다. 합신 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표준 예식서’ 개정, 목회자 이종직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이 올랐다. 중복 안전도 있다. 김대욱 한동대 교수의 동성에 옹호, 이단 사상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은 경북노회·경기중노회·남서울노회 등 3개 노회에서 올라왔다.

“협력·존중해 희망 되자” 기침 108차 총회 경주서 개막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안희목)는 17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새로운 미래로 함께’란 주제로 제108차 정기총회를 시작했다.

안희목 총회장은 “침례교 정신은 ‘나 홀로’ ‘내 대대로’ 하는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되신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희생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모아진 영적 시너지와 함께 사람들에게 믿음의 지주가 되고 세상을 희망이 되는 침례교단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직전 총회장을 맡았던 유관재 성광교회 목사와 ‘침례교회’(행 11:25~30)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침례교회의 정체성과 긍지를 강조했다.

기침 총회는 이날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회부를 처리하고 신임 총회장을 선출한다. 첫날엔 예배와 함께 주요 근무자와 공로자에게 안희목 총회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회원점명을 시작으로 회신을 통과시키고 목회자·가임교회·지방회 인준 등을 처리했다.

총회장 선거는 둘째 날인 18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기호 1번 박종철 새소망교회 목사와 기호 2번 고명진 수원중앙교회 목사가 등록, 열띤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박 목사는 5년간 미자립교

회의 재정과 리모델링 지원, 목회자 전원 연금 가입, 학교수습전권 위원회를 통한 침례신학대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 목사는 은혜재단(연금) 발전, 미자립교회 안식일 제도 및 목회자·사

금고형 이상 윤리위 회부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안희목)는 18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08차 정기총회 둘째 날 회부를 이어갔다. 오전에는 총회 규약 개정과 선거관리위원회, 벨티스트 기관 정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총회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분류했다. ‘교단 내 기관과 총회 규약에 명시한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써 교단의 내부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 승인을 거쳐 징직 이하의 징계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총회 선출직과 교단 산하 공직에 있는 자가 징계 또는 최종 법적 판결로 300만원 이상의 금고형(형사사건) 이상을 받으면 즉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는 최근 성추행으로 1심에서 벌

모 정밀 건강검진 등 목회자 삶의 질 향상, 임시이사 기간 최소화를 통한 침신대 정상화, 침례교 대외 위상 확립 등을 제시했다.

기침 총회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와 대의원이 등록해 총회장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모두 1680여 교회와 기관에서 파송한 1956명이 대의원으로 등록했다.

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총회 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또 징계의 종목과 내용을 경고 근신 징직 면직 제명 환수 등으로 세분화했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린, 차기 총회 의장단 등록비를 하향 조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총회장 후보 5000만원, 제1부총회장 후보 2000만원, 제2부총회장 후보는 1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안희목 총회장은 연금제단과 관련, “지난 14일 연금제단 허가 가 나와 안정적으로 운영될 기를 마련됐다”며 “연금제단을 통해 기침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고했다.

유관재 직전 총회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기침 목회자를 위한 연금제단엔 지금까지 총 1035명이 가입했고 50억원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

한 세미나를 열고 이어진 회부에서 NAP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반대 서명운동도 펼쳐기로 했다. 내년 2월 24일을 ‘3·1절 100주년 기념 주일’로 정하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추진하는 기념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상임총무 강보식 목사는 “3·1절의 기독교적 의미가 담긴 공동성교문과 기도문을 교단 산하 회원 교회에 전하고 민족독립의 의미를 함께 회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개회한 총회는 19일까지 열린다.

51개 곳으로 소개됐다. 이번 발표를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북신위 조사에서도 134곳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지리 정보, 담당 목회자 등 북한 내 성결교회의 명확한 근거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주승민 연구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1944년 조선총독부 문서와 ‘조선야소교성결교회약사’, 교단 지 ‘활천’ 등을 집중 분석해 밝혀낸 것”이라며 “통일 이후 성결교회 복원을 목표로 관련 자료를 더 수집해 추후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몇 가지 사안을 보장 조사한 뒤 기성 총회의 북한 선교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성원 총회장은 연석회의에서 “북한 내 성결교회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연구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북한 내 성결교회가 분단 이후 남한에 재건된 경우 등을 확인해 향후 교단 통일선교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하성 11월 20일 임시 통합총회

여의도순복음총회 실행위 밝혀...내년 5월 행정 통합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18일 부산 해운대구 한화리조트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20일 임시 통합 총회를, 내년 5월엔 행정 통합 총회를 갖기로 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이날 “최근 기하성 산하 교단에 통합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 가운데 서대문총회(총회장 정동균 목사)가 통합에 참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며 “교단 통합 문제는 더 이상 역행할 수 없는 과제다. 내년 5월 총회까지는 하나가 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실행위는 교단 통합의 실무를 임원회에

맡기되 전직 총회장들의 자문을 받아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순복음 교단은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하성 서대문, 기하성 광화문, 기하성 신수동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예하성) 등 5개 교단으로 나뉘어 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 서대문은 그동안 통합 논의를 지속해 왔다. 광화문의 경우 임원회가 통합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회원 교회를 중심으로 별도 통합에 나서기로 했다. 광화문 측 교회 3분의 2가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앞으로 예하성과도 하나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된다. 나 역시 기득권을 가질 생각이 없다”고 말

했다.

이날 실행위에는 총회 임원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장, 각 지방회 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실행위원들은 교회학교 지원 예산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으며 여의도지방회장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장균 수석부목사를 실행위원으로 인준했다. 다음 달 29일에는 지방회 임원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영훈 총회장은 17일 저녁 열린 실행위 세미나에서 교단이 나아갈 방향을 선교적 교회로 제시했다. 선교적 교회란 모든 신자들이 선교사적 삶을 사는 공동체를 말한다. 이 총회장은 “기하성의 특징은 성령세례와 방언, 성령무오, 신유, 재림, 세계선교가 특징”이라며 “우리 교단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할 것이다. 신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 우상화 행사장 앞 “가정 파괴 중단하라” 규탄

교계·피해자 부모, 인천 ‘만국회의’에 맞대응 집회

18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중앙광장에는 흰색 상의를 입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 신도 수백명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광주 울산 마산 등 각 지역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돌아다니는 청년도 보였다. 중앙광장을 지나 서문 쪽으로 향하자 그 수는 점점 늘어났다. 서문에는 계단을 따라 신천지 신도 1000여명이 왼손에 각국 국기를 흔들고 있었다.

신천지 피해자 부모들도 서문 앞에 섰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홍연호) 회장 40여명이 50m 간격으로 경기장 주변을 에워쌌다. 이들은 ‘종교 사기꾼 이만희는 가정파괴 중단하라’ ‘신천지는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라’는 팻말을 들고 이들을 에워쌌다. 시간이 지나며 팻말과 함께 확성기로 ‘아이들이 돌아와라’를 외치는 피해자 부모들의 수는 늘어났다. 정문 앞에도 ‘가정파괴 신천지는 인천에서 떠나라’는 현수막이 여러 장 붙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87)씨의 우상화를 위한 위장 평화행사인 ‘만국회의’ 행사현장이었다. 이씨는 쉼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대표를 겸하고 있다. 이들은 세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법을 제정한 지 4주년이 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천기독교총연합회(인기총·회장 이동원 목사) 성도들도 집회를 위해 모여들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날 ‘만국회의’를 위해 신천지 측에서 5만명, 인기

총에서 1만5000명, 전피연에서 500명이 집회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병력도 36개 중대 3000여명이 투입됐다.

만국회의 개최 시간이 다가오면서 두 집단 간 충돌이 빈번해졌다. 오후에는 각 지역에서 도착한 신천지 신도들과 전피연 회원들 간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10여분간 지속된 몸싸움은 경찰이 HWPL 행사 참가자의 이동로와 집회 현장을 구분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어 인기총에서도 경기장 밖으로 난 인도를 따라 풍선을 든 채 서서 대관 취소를 요구했다. 울타리 반대편에서는 신천지 신도들이 북과 징구, 징을 동원해 방해했다.

만국회의가 신천지 행사인지 몰

사학분쟁조정위, 총신대 임시이사 15명 통보

교육계 10명, 법조계 3명, 회계 분야 2명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현환)가 19일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총신대에 임시이사 15명을 통보했다. 이사진 구성은 교육계 10명, 법조계 3명, 회계 분야 2명으로 이뤄졌다.

선임된 이사는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조경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김진영(건국대 경제학부) 김영철(서강대 경제학부) 김용연(한국외대 사범대) 임철일(서울대 교육학부) 김미량(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강윤주(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이보형(서

라다며 집으로 향하는 사람도 있었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지인과 함께 만국회의에 왔다는 이모(63)씨는 시위 현수막을 보고서야 만국회의가 신천지와 연관된 사실을 알았다. 이씨는 “세계평화를 위해 유명 인사들이 모였다는 사실만 듣고 왔다”며 “신천지와 연관된 행사를 알고 향했다더니 지인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신천지에 들어오면 되지 않냐’고 말해 화가 났다”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지역 주민들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김다민(26)씨는 사이비종교와 연관된 행사가 공공장소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씨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도 신천지가 불법을 자행하는 사이비 집단인 사실은 알고 있다”며 “인천시 당국이 왜 경기장 대관을 허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NAP 반대 운동 적극 동참 결의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제83회 총회 개회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는 18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제83회 정기총회를 갖고 임종원(명문그리스도의교회) 목사를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단독 후보에 오른 임 목사는 신임투표를 거치지 않고 총대들의 박수로 회장직에 올랐다.

임 목사는 “그교협 산하 형제교회들과 서로 돕고 협력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교회를 이루는데 힘을 쏟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는 한국교회와 더욱 하나 되는 사역을 펼쳐 예

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세상에 전해지고 우리 사회에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원선거에서는 제1부회장에 지난 회기 제2부회장을 지낸 김성수(강릉제일교회) 목사가 박수로 추대됐다. 제2부회장과 장로 부회장에는 각각 김홍철(하나교회) 목사, 이기문(성화교회) 장로가 단독 출마해 신임투표에서 총대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교협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실제’에 관

분단 이전 북한 내 성결교회는 82곳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북한선교특별위원회 최근 조사

한반도 분단 이전 북한 내 성결교회가 82곳에 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윤성원 목사) 북한선교특별위원회(북신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총회 본부에서 ‘북한성결교회 복원 사업을 위한 북한교회 기초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신위가 총회 임원들과의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이 자료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소장 주승민 교수)가 주관해 작성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북신위의 후원을 받아 연구에 착수한 연구소는 3개월여 동안 1944년 조선총독부 문서와 1929년 이병직 목사가 출간한 ‘조선야소교성결교회약사’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휴전 협정이 있던 1953

년 이전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된 북한 내 성결교회는 8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함경북도 15곳, 함경남도 23곳, 평안북도 12곳, 평안남도 12곳, 황해도 13곳, 경기도 2곳, 강원도 4곳, 기타 지역 1곳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조선총독부가 파악해 작성한 북한 내 성결교회 이름과 위치, 담당 목회자와 성도 수 등의 정보가 담겼다. 이들 중 일부는 지교회 설립 사유와 비용, 파송 목회자 및 위치와 관련된 내용도 등장한다.

그간 북한 내 성결교회 관련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돼 왔지만 결과가 들쭉날쭉해 조사 신뢰도에 논란이 있었다. 2008년 기성 총회 100주년 행사 당시엔 78곳으로 발표됐고 이듬해 교단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가 2010년 펴낸 연구서에는

은혜와 감동이 가득...채널마다 힘이 가득

추석연휴 볼만한 기독교 방송사 프로그램

추석 명절을 맞아 기독교 방송사들이 가족 간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교회 성도들이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단법인을 세우며 행복한 빵 사역을 하는 교회 이야기, 네 아들과 함께 떡집을 운영하며 매일 희망을 빛는 최길선 장로의 간증,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북한에 고향을 둔 탈북민의 이야기 등이 공개된다.

CBS TV는 성경적 관점으로 명절 스트레스와 감정을 해소하는 부모들의 이야기 ‘새롭게 하소서-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준비했다. 해마다 명절이 오면 명절증후군과 시댁 또는 처가와 갈등으로 이혼위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부, 고부간 쌓였던 갈등이 명절 스트레스와 함께 폭발하는 경우가 많다. 진새골 사랑의 집 ‘업그레이드 부부학교’를 수료한 세 부부를 초청해 성경적 관점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고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들에 관하여 알아본다. 방송은 24-25일 오전 9시10분.

‘미션 현장속으로’에선 경기도 의왕 새생명교회의 봉사현장을 들여다본다. 이 교회는 10년째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짜집빵을 구워 나누는 ‘행복한 빵’ 사역을 하고 있다. 굶주린 이주 노동자에게 빵을 사다 준 것이 계기가 됐다. 이제는 담임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등 교회 식구들이 제빵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단법인 ‘나눔행복’까지 세웠다. 매주 목요일 2000여개의 빵을 구워 노숙자

쉼터와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 시설 등 20곳의 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대상 70여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방송은 25일 오후 1시.

선교사들의 값진 사역을 기리는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예수의 흔적’도 있다. ‘조선을 사랑한 호머 힐버트 선교사’편이 23일 방송된다. 선교사 호머 힐버트는 임의로만 전해오던 아리랑을 악보로 만들어 세계에 알린 것은 물론 조선의 독립운동가로도 알려졌다. 그는 일제의 만행을 인륜에 신고 을사늑약과 일제 지배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헌신했다.

C채널방송은 추석을 맞아 힐링 토크 회복, 북유럽 성지순례, 교회 탐방은 물론 국내외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 풍성한 추석특집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한다. ‘최일선의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2대째 기술을 이어받은 네 아들과 함께 떡집을 운영하는 최길선 장로와 매일 새벽 5시부터 반죽과 함께 희망을 빛는 믿음의 5부자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 는 마음으로 불우이웃에게 쌀을

기부하며, 미자립교회에 떡 만드는 기술을 나눠주고 있다. 방송은 21일 오전 10시30분.

‘교회탐방-여기 드리는 쉼마 예배, 담임목회자가 부목회자를 신뢰하고 맡기는 자율목회 등으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섬김과 사랑을 바탕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대명교회의 일상을 들여다본다. 방송은 22일 오전 9시40분.

이외에도 성경 속 과거의 모습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풍경을 담은 4k 해외 다큐멘터리 ‘아이 엠 이스라엘(I Am Israel)’, 고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국내 영화 ‘일사각오’와 가족 간의 화합을 다룬 해외 영화 ‘엄밀베를 ‘오픈 도어’도 만날 수 있다.

CTS기독교TV도 특집다큐와 영화를 준비했다. ‘성경은 역사다’는 추석 당일인 24일 저녁 7시30분에 특집 방송된다. 이스라엘 성지 현장을 있는 유물과 유적의 고고학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심도 깊게 살려 낸 다큐멘터리다. 성지문화원 원장인 박용우 교수가 참여해 이스라엘 유물과 유적에 대해 친절한 해설을 곁들이고, 기존에 담을 수 없던 성지 현지 고고학자와 석학의 견해도 함께 담아낸다.

‘성경의 땅, 요르단’은 화요일 같은 시간 방송된다. 성지가 100곳 이상 되는 방대한 성경의 땅 요르단, 우리가 잘 몰랐던 땅 요르단에 숨겨진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을 조명한다.

교도소 선교칼럼 (49)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용서

사무엘은 10살 때 형무소에서 출소한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후에 하나님 이야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렸다. 그리고는 14살 때 대마초를 시작했고, 2년 후인 16살에 조폭에 가담한 뒤에 학교를 중퇴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코카인을 하면서 강도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잘못된 길 알면서도 사탄을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탄을 만났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만약 너를 사랑한다면 왜 네가 고통을 당하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거야. 너의 영혼을 내게 팔면 너를 부자로 만들고 가장 예쁜 여자도 주고 모두가 너를 우러러보게 될 거야.”

사무엘은 사탄과 계약을 하고 검은 마수에 걸려 들은 후 극도로 폭력적이 되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악마에게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에게 소책자를 건넸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계약을 파기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일을 했든지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

다. “이제 그만 도망치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진리를 보여 주고 싶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님 되심을 알려 주시고 사탄과의 계약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었다. 마침내 사무엘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가 투옥되었을 때 신앙 간증을 썼다.

“용서의 하나님”-사무엘 우라이브

2006년 5월 1일에 나는 다시 투옥되었다. 원래 교도소에서 청소나 일을 하면 형기를 단축시킬 수 있지만 내 경우는 제외였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느꼈다.

“하나님, 저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 제가 죄인이고 더럽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 뜻대로 내 삶을 인도 하소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 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끝까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표지가 없는 책을 중간쯤부터 읽기 시작했다. 주님을 알았지만 떨어진 후 교도소에 와서 다시 주님을 만난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서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고통, 생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책의 제목은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 숨지 않는다”였고 이 책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었다.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나는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렘29:13).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만난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한다. 전에는 단순히 복을 구했지만 나는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원한다.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해도 용서하실 수 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예수님만이 진리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1-2).

사무엘의 놀라운 변화와 강력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한 예배에서 그는 내내 눈물로 간증문을 읽었다. 그가 읽기를 마쳤을 때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1분 이상 박수를 쳤다. 예배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회복

사무엘은 10살 때 형무소에서 출소한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후에 하나님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렸다. 그리고는 14살 때 대마초를 시작했고, 2년 후인 16살에 조폭에 가담한 뒤에 학교를 중퇴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코카인을 하면서 강도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잘못된 길 알면서도 사탄을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탄을 만났다.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책 시리즈 모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재소자들이 글을 쓰고 수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중 21세인 라키샤는 그 누구보다 문서선교 프로젝트에 열정적이었고 책의 수정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글을 대필까지 해주면서 문서선교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삶의 목표를 찾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해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소자의 간증 책 이외에도 나에게 관한 간증문을 계속 쓰고 그 책들을 통하여 재소자들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배포하는 일을 하게 하

셨다. 처음에 문서선교는 나의 저서 “예수님과 걷는 길”과 “영적 부흥” 책들로 시작되었다. 신학대학원 시절, 하나님의 인도로 재소자와 노숙자들에게 보급하게 된 것이다. 10년 전에 쓴 “영적 부흥”을 다시 편집하여 출판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내키지 않았다. 이미 “꿈과 해석”이 출판된 후라 반복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순종을 하려고 라키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나의 두 책을 비교해서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나는 산이었다, 믿음과 영적 부흥의 길을 찾아서”를 출판할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있는 감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인도한 후에 그녀가 하고픈 말이 있다고 해서 단 둘이 점진실로 갔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꿈을 꾸었는데 잃은 아들이 잘 있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요”라고 말할 그녀는 그 꿈의 이야기를 간증문으로 썼다. 그녀는 형을 받은 이후 덴버 여자형무소에 도착해서 책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책 프로젝트가 없다. 그래도 그녀에게 계속해서 책을 쓰라고 권면하고 외부의 교회들과 연락해서 책을 출간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

“놀라운 꿈”-라키샤 비힐

총격으로 인해 아무것도 먹을 수도, 잘 수도 없던 나는 목사님과 대화 후에 D동에 배정받았다.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 숨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때부터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내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었다. 그런데 나의 치유는 꿈을 통해서 다가왔다.

2011년 1월 25일 밤에 잇을 수 없는 꿈을 꾸었다. 푸른 잔디가 있는 언덕위에 큰 나무와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고 하늘엔 새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정말 멋진 풍경이었다. 그 때 나는 스페인어로 찬양하고 있었는데 잘 생긴 한 남자가 흰 옷을 입고 땅에 씨앗을 뿌렸다. 그 씨앗은 내 눈앞에서 자라나 크고 예쁜 꽃을 피웠다. 그 씨앗은 내 아들이었고 나를 향한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모든 것이 좋아질 거예요.”

흰옷의 잘 생긴 남자는 예수님이었는데 나의 잃어버린 아들이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치 넘어진 어린 딸을 일으켜 세워 보살펴주는 아버지처럼 나를 치유해 주셨다.

라키샤는 처음 교도소에 왔을 때 자살충동보호구역 방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교도관이 상담을 요청해서 그녀를 방문했다. 그녀가 자살충동으로 그곳에 감금된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그녀가 조폭의 멤버로서 살인과 관계되어 감금된 일로 인해서 총격을 받아서 자살을 할까봐 미리 감금한 것이었다. 그녀는 계속 울고 있었고 심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 받았고 미소를 되찾았다. 그러던 중 룸메이트가 자살을 했고 그 광경을 목격한 라키샤는 다시 고통과 충격을 감당해야 했다.

“주님, 왜 그녀입니까? 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놀랍게도 라키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또 다시 체험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통해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녀는 자살한 룸메이트에 관한 이야기도 써서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라고 격려의 글을 썼다. 그분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Family Touch Korea로 사역 확장

패밀리터치, 한국 지구촌교회와 MOU 체결식

지난 9월 22일 오후 4시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와 한국 지구촌교회(담임 진재혁 목사)가 패밀리터치 비전센터에서 교류협력(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은 패밀리터치와 지구촌 교회가 올 1년동안 교류 협력

가능성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이루어진 체결식이었다.

협약서의 중요 내용은 ‘지구촌교회 가정사역센터’의 기관명을 ‘Family Touch Korea’로 하고 교회 중심 가정사역과 상담사역을 커뮤

니티 아웃리치를 통해 시와 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정을 더 적극적으로 돌보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활발히 펼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가정사역 및 상담 프로그램의 공유 및 공동 운영 기회 및 장소 제공, 가정 사역 및 상담 프로그램의 공동 연구, 대외 홍보 공동 협력,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인력 교류를 하자는 내용이 서로 합의했다.

‘Family Touch Korea’는 3개월간의 준비 및 법적 절차를 마치고

2019년 1월 오픈할 계획이다. 이로써 Family Touch는 한국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다. 이미 이곳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검증됐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자 훈련 뿐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Family Touch Korea 본부장으로는 현재 지구촌교회의 가정사역 담당 ‘조병민 목사’가 맡을 예정이다. 또한 경인/인천 지역을 위해서는 ‘유경옥 지부장’이 이미 활동 중이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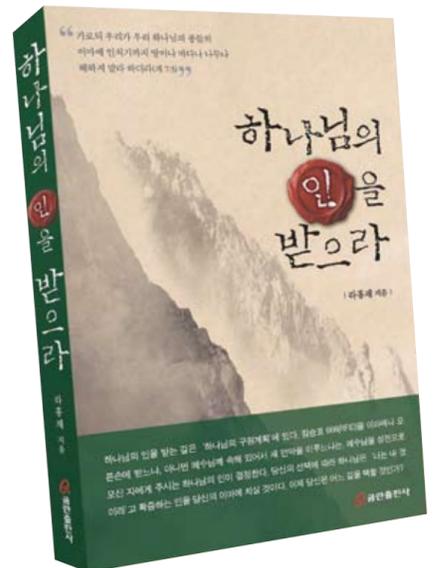


왼쪽이 진재혁 목사, 오른쪽 정정숙 박사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기독교경영 전략

기독교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27)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조직행동과 성경적 원리

조직행동의 성경적 원리는 기업 내 조직의 각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출애굽기 18장 24-26절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충고는 성경 역사에서 경영 구조의 변화에 관한 첫 번째 예다. 경영학에서 학문으로서의 조직행동론의 창시자는 프레드릭 테일러(Frederick Taylor)로, 과학적 관리론이란 개념이 개발되었고, 이후 엘턴 메이요(Elton Mayo)에 의한 동기 부여 이론과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및 프레드릭 헤르츠버그(Frederick Herzberg)의 동기부여 이론 등이 있

구약에서 정의(Justice)는 법적 개념 이상이다.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율법서에 설정된 윤리적 기준을 지지하는 것과 같다(삼 3:5, 창18:19, 사1:16-17). 권력의 남용은 예언서에서 되풀이 되는 주제이다. 말라기는 정의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말3:5).

C. 일은 그 한계가 지켜져야 한다

성경에서는 신, 구약 어떤 곳에서도 일 자체가 목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노동은 물질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것을 게을리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랑은 선행과 도움으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표현하셨던 그 사랑에서 본을 찾을 수 있다.

E. 성공적인 기업은 비전의 공유를 요구한다.

잠언 9장 18절에서 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공통된 비전이 없으면 혼란, 무질서, 통제할 수 없는 방종을 가져온다. 비전은 공통된 목적으로 우리를 함께 묶어 주고 연합시켜 준다. 비전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도

창조주의 가치 지닌 인간은 정의롭게 행동해야 노동은 예배에 비해 부차적... 사랑과 비전 공유

다. 조직행동에 대한 성경적 원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모든 개인은 하나님께 가치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다(창1:26-28).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본질적으로는 창조주에 대한 책임이라는 선물이다. 인간은 그의 지적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에텐에서 하나님과 인간과 세우신 관계에 의해 구별된다.

그 관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완전히 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개인적 대명사인 '나'(창3:9)를 부르시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손을 뻗치시는 분이이며 이 구속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인 인간의 책임을 회복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이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인간 상호간의 가치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가르침이 성경에 있다(레19:18, 롬13:8).

B. 정의는 이루어져야 한다.

으로 보며 윤리적 의무로까지 보고 있으나, 제일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비교해서는 항상 부차적인 것이다(살후3:10-12).

성경은 정의를 요구하지만 단지 정의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쳤던 회년의 개념과 동일하게 부를 창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 그 한계를 정한다. 열심으로 일하는 것과 생산성을 권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소유권 형태를 영원히 왜곡시키는 한계와 그 사회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일은 그 위치가 지켜져야 한다(암8:4-7).

D. 이웃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의무는 사랑이다

사랑의 두 가지 계명-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신 것이다. 두 가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경전체에 걸쳐 이상적 인간관계의 특성으로서 증언되고 있다. 사랑은 축진제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수단을 통해 얻고자 하는 보다 큰 협력이나 생산성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 혼자만 비전을 소유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결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목격한다.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있는 조직 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 각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들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나 차별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해야 한다.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당연한 것이며 조직의 비전이 개인들의 비전과 함께 공유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회 혹은 선교단체, 기업 등에서 있어서 마치 도구처럼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는 것과 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조직의 구성원인 개개인을 고귀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조직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직행동에 대한 성경의 원리가 적용되는 조직의 모습을 통해서 조직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이다.

dr.jameskoo@yahoo.com

선교 편지

스와지랜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9장 8절).

정말 혹독하고 기나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가야만 하고 이제는 결실의 계절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더위와 태풍과 폭우 등이 조국의 산하와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주께서 정해놓으신 섭리를 거스리지는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이곳 스와지는 겨울철이라 너무 시원하게 지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남은 시간들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스와지는 지금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기간이라 장관들도 다 임기가 끝났기에 각 부처도 차관들이 직무대리를 행하는 상황이라 내각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선출될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들이 임명되고 새로운 국무총리가 지명되어 내각이 구성되어 제 기능을 하려면 내년 초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께서 이 땅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필요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셔서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정치와 행정들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독교대학교의 의대 설립문제라든지, 우리 팀이 보건부와의 새로운 형태의 협력 사역에 대한 문제 등이 조금은 시간들이 더 필요하리라 보이는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도도 준비하며 잘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수년전부터 이곳에 진출하여 왕과 정치권을 통하여 이들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집단인 "기쁜소식선교회(박옥수 목사)"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력한 기도요청을 드립니다. 7월 중순에는 우리들과 협력사역을 하는 한국의 The Right Hands의 순정배 대표가 다녀갔습니다. 7월말까지 고신의대와 협력하여 코이카에 신청할 과제에 대한 사전 점검과 협의를 위해서,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우리 팀과 함께 진행하는 구호사업 및 식수 및 보건위생 개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그래서 이 스와지 땅과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에는 고신대 및 부경대의 협력사업인 "자국경부감진방법개선"에 관한 1년차 사업진행을 위해 옥철호 교수(고신의대)를 단장으로 윤희구 교수(산부인과), 김성원 교수(이비인후과), 전재용 목사(병리사), 안예찬 교수(부경대 의공학과) 및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팀이 방문해서 새로운 방법의 시도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발견된 제반 문제점들과 보완점들이 잘 해결되어서 내년 2차년도에는 현지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팀으로는 7월 첫주에 소화기내과 김호동과장님(순천 성가톨릭병원)이 바쁜 신 환경에서도 특별히 시간을 내 주셔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주일간 방문하셔서 스와코메디칼센터에서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을 시행하시고 필요한 소화기환자들에 대한 자문진료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둘째주에는 조대윤교수님(중앙대 흉부외과)이 1주일간 방문하셔서 Mbabane 및 Hlathikhulu정부병원 및 RFM선교병원에서 혈액투석환자들을 위한 혈관수술을 시행하셨고 또 의뢰된 환자들에 대한 흉부의 과적 자문 진료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또 금년 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남호 교수님(침구사)이 6월말부터 7월말까지 한달간 방문하셔서 스와코메디칼센터와 로밤바클리닉, 그리고 아우리치 등을 통해서 통증진료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도 방문해 주시기로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께서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8월 첫 주에는 충남대병원팀(소아외과 설지영 교수, 정소영 전공의, 성형외과 경현우 교수, 최재의 전공의, 순환기내과 정진우 교수)이 방문하여 Mankayane 정부병원 및 RFM병원에서 선천성항문기형수술, 구순, 구개열수술, 기타 수술 등을 시행하였고 정진우 교수님은 보건요원들에 대한 1일 워크숍을 진행하셨고 스와코센터에서 의뢰된 환자들에 대한 자문진료 및 심에코 등을 시행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충남대병원과의 협력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8월 둘째 주에는 고신대 외과팀(백승연 교수 및 최재의 전공의)이 자국경부감진조기진단팀과 함께 방문하여 각 정부병원 등에서 자문진료와 수술 및 의료진들에 대한 특강을 시행하였습니다.

9월 첫 주는 전남대 김관식 교수님(흉부외과)이 방문하셔서 혈관수술로 섬겨주실 것입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금년도 1/3만 남았습니다. 통상 추석전후로 진료팀이 방문하였으나 금년에는 아직 예정된 팀이 없습니다만 주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시리라 믿으며 금년 말까지 진행될 초정진료 및 수술 일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실 것으로 믿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에는 8분(강혜은, 안진영, 김미리, 김호동, 조대윤, 이경숙, 충남대병원팀, 부신진료팀)이 정기후원 및 특별후원으로 새롭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귀한 후원금 잘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음 소식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내년 평강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스와지랜드에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김선영 드림(sykim@cnu.ac.kr)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 DMin in Counsel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3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Food in Bible(7)

유류 및 유제품 (Milk & Dairy Product) (하)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모유의 중요성

목축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 배경인 성경에서도 보면 아기들은 주로 모유로 키워졌던 것 같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떼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삼상1:23-24)라는 기록이 있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면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어 보통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생각해 이것을 경중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도 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창21:8).

내며”(창24:59).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벨열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몬바곳이라 불렀더라”(창35:8).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살전2:7).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아기들이 모유로 키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전부 하수에 던져 죽게 했으므로 모세 부모도 역시 모세를 상자에 담아 하수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바로

을 할 때 조제분유가 모유보다 좋다고 든가 모유대신 먹일 수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게 되었다. 엄마 젖 떼 후 먹는 이유식의 개념으로 조제분유를 선전해야 한다.

한 때 조제분유가 유행을 해서 많은 수유부들이 아기에게 모유대신 조제분유를 먹이는 것이 당연시된 적이 있었다. 70년대 한국에서 유행하던 ‘우랑아 선발대회’도 모 분유 회사가 모유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전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모유는 항균성 물질이 많고 소화 흡수율이 좋아 신생아의 질병 이환율이 낮아 사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고 비만, 감염 및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모유의 영양적 우수성 과학도 증명...성경서 유모 언급 정서 발달과 안정, 성격과 인격 형성 면에서 훨씬 유리

시편에 또한 모친의 젖을 먹는 사실을 기억하는 구절이 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시22:9).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열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젖 먹이도록 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삼상1:22).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엄마가 젖이 부족할 때 유모를 구하거나 암축을 쉰어 먹였었다. 흉년 심청이도 동네 아주머니들의 젖으로 키워지지 않았던가. 구약과 신약시대에도 유모는 있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

왕의 딸이 모세를 주위 자기 아들로 삼았고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구해진 유모가 바로 모세의 생모인 것이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하였더라”(출2:7-10).

이제는 모유의 영양적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되어 있고 조제분유 선전

한다. 또한 모유 수유는 모자간의 접촉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모유 영양이라는 정서 발달과 안정, 성격과 인격 형성 면에서 인공영양아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한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모유로 아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사회를 만드는 한 밑거름이 되는 것임을 유모의 존재와 모유 수유의 언급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 해의 후반부를 보내며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갓난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성정에 박차를 가하시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길 기도해본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2:2).

cse1001@gmail.com

(2면에서 계속)

변화의 로드맵을 차근차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교회나 단체가 안주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위험으로부터 건재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결론으로, 데릭과 리더교회와의 사례와 같이 변화에 대해 극렬한 반응을 보이는 공동체일지라도 쇠퇴와 실패를 향해 나아

가는 걸음을 바꾸어 부흥의 새 날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른 리더들의 실패를 교훈삼아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여러 아픔들과 저항을 예방하게 된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로드맵의 구축 역시 리더가 변화를 준비하는 중요한 초석

이 될 것이다.

리더는 안주하거나 죽음으로 가고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혜를 모든 리더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한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고후11:10-12)찬382장

진리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왜? 첫째, 그 앞에는 형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10).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진리 위에 선 자에게는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이는 복음 자체가 진리이고 진리인 그리스도가 진리의 사람을 통해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과만 상대로 일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11). 바울에 대한 오해로 고통당하는 그는 하나님만이 그 사

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이 최대의 힘이고 어떤 문제도 이깁니다. 주께서 반드시 백일하에 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실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12). 하루 이틀이 아니고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사역이 되려면 본래 받은 진리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것이 해답입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케 함을 알게 합니다. 진리의 선한싸움을 싸웁시다.

화 거짓 사도의 증거(고후11:12하-15)찬456장

거짓 교훈으로 고통하는 사도는 그 정체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인간적 칭찬에 목마릅니다(12하). 거짓 사도의 목적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경건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나아가 교회는 물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외식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13-15). 사탄의 사족을 받아 조자연적 수단인 기적이나 기

이한 현상을 이용해 자기 목적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을 시험한 사탄의 수법은 교회에 계속 되기에 항상 바른 교훈에 대한 분별을 힘써야 합니다. 셋째,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15). 멸망이란 이 땅에서도 육체의 열매를 나타내며 자기 탐욕을 채움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벌써 심판에 나가기도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 교훈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리로 무장합시다.

수 바울의 자랑(고후11:16-22)찬49장

사도는 사도권에 도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속삭임에 빠진 고린도교회를 향해 자신의 참된 사도됨을 3가지로 증거합니다. 첫째, 겸손한 태도로 증거합니다(16).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된 증거를 나타냄으로서 그들과 비교해 바른 교훈에 사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 그들의 믿음을 계시에 두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둘째, 그는 자기 속에서 친히 일하

신 주님의 역사를 대담히 증거합니다(17-21). 일반은총 속에서 일하신 주의 은혜를 말함으로서 그들의 신앙을 사도적 계시에 두게 하려 했습니다. 셋째, 고난의 증표를 통해 증거했습니다(24-27).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무수한 고난이 자신의 사도의 증표임을 진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골짜기 속에 피어난 화석류 수풀 안에 붉은 말 탄 자처럼(숙1:7) 고난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증거합니다.

목 사도가 당한 최고의 고통(고후11:23-29)찬383장

사도가 당한 고난은 그를 더 복되게 했습니다. 시련기자의 고백대로 고난당함이 곧 내게 유익이라는 상태가 사도가 처한 자리입니다. 첫째, 그가 당한 고난은 형언할 수 없는 광범위한 고통이었습니다. 23-27절에 나온 것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리적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욕이나 요설이 당한 고난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

에 숨겨진 복된 세계를 체험했기에 자랑합니다. 둘째, 그러나 그가 더 고통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교회를 바라보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빛어집니다. 고난의 복음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구합시다.

금 약할 때에 강해지는 길(고후11:30-33)찬387장

세상의 처세술과 달리,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중 그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의 극도의 두려움을 간증하며 그 속에서 조용히 일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 겸손을 항상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거짓사도의 간증에 현혹된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겸손히 말합니다. 고난 만큼 겸손하게 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고치시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삼층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신비적 체험을 간단히 말함으로 사도권을 증명한 것입니다. 약할 때 그의 권위는 더 강해졌습니다. 주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덕을 세우는 것을 우선하였습니다. 자기 자랑을 금하고 도리어 이웃의 신앙이 자기 체험이 아닌 주의 말씀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과 그의 말씀에 둘 때 약함이 강함일 수 있습니다.

토 사도의 고난관(고후12:1-10)찬420장

사도의 고난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보화과 같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것은 겸손을 유지하게 하는 방편입니다(8). 가만 놔두면 저절로 교만한 인간이 항상 겸손해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고난으로 연단을 받아 겸손의 자리가 나게 됨이 복입니다. 둘째, 그것은 능력의 원천을 활용하게 하는 것입니다(9).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그 속에서

살게 합니다. 빈궁이나 풍부에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 임합니다. 셋째 감당할 은혜를 채우시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세번씩이나 가시를 제거를 구한 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응답은 고난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족함을 체험함을 보여줍니다. 족한 은혜로 부족함이 많은 세상을 이깁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후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30(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월-토)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벨열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http://www.belthechurch.org/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주일, 유년, 종교단체: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8:00 금요찬양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배: 오후 8:00 주일, 유년, 종교단체: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 Road, Charlotte, NC 28209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psattle.org	안다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해: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hs.com	앵커리지벨리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http://www.belthechurch.org/	엘파소열린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해(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aleti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2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수 오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cc.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찬양: 오후 2:00 원년예배: 오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인/터/뷰

시온복음선교회 대표

글로리아김 선교사

LA 노숙자사역 32주년 맞아 10월 6일(토) 오후3시 기념예배 준비
현재 선교회 건물, 올해말 재건축 예정... 토탈케어센터 기대

시온복음선교회(대표 글로리아김 선교사)가 창립 32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6일(토) 오후 3시에 기념예배를 갖는다. 이를 준비하는 본 선교회 대표인 글로리아김 선교사를 만나보았다.

지난 1986년 3734 W. Adams Blvd. 소재 창고에서 글로리아김 선교사와 그의 어머니인 고 이복립 여사 등과 함께 설립한 시온복음선교회는 지난 32년 동안 LA의 노숙자들을 위해 먹거리와 의류 그리고 쉼 곳을 제공해왔다. LA 노숙자들의 대모로 불리는 글로리아김 선교사는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글로리아 김목사(우)와 소셜워커 김혜정 집사.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와 저는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 중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역을 해왔어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돌아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어려움들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97년 12월 로텍호텔 근방에 마련된 본 선교교회 건물화재로 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려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었지만 언론기관의 보도로 인해 도움의 손길들에 있어 현재 건물인 3113 W. Venice Blvd에 사역처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건물에 물이 무릎까지 찻던 일 등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고 있다.

“97년 화재 때는 눈앞이 캄캄해지는걸 느껴요. 사역을 위해 외출 중이었는데 건물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엇을 했길래 집에 불이 나느냐고 해서 사역을 중단하고 돌아왔는데 동네에 소방차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당시 휴리스 한명이 선교회에 들어와 지내려고 했었는데 들어오기 하루전날 불이 나서 휴리스의 입주가 취소가 됐지요. 만약 예정대로 들어와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라고 말했다.

언론기관의 발 빠른 보도로 인해 현재의 건물을 구할 수 있었으며 1998년 10월부터 입주해 지금까지 휴리스들을 위해 새벽부터 분주히 사

역에 임해왔다. “새벽 1시부터 야채스프를 끓이고 베이글과 과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노숙자들은 새벽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먹거리를 준비해야 해요. 지금은 운전하시는 분이 개인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예전처럼 사역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틈틈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사역을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8월 첫째 날부터 동역하고 계시는 소셜 워커 김혜정 집사님은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시온복음선교회는 현 위치에 3층 규모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다. 건물 크기는 3,749스퀘어 피트이며 총비용은 999,990달러로 빠른 올해 말 건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주님께서 앞으로의 사역 또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어요. 특별히 LA에 휴리스 이슈로 시끄러웠는데 저희 선교회를 통해 휴리스 사역을 잘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자원봉사 소외된 불쌍한 환자와 노숙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상태와 심리적 갈등과 문제들을 주님의 사랑(눅10:25-37)과 이해와 용서로 대하며 사역을 펼쳐온 글로리아 선교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새로 건축이 되는 선교센터는 휴리스들을 위한 토탈 케어(Total Care) 선교센터가 됐으면 한다”며 많은 분들이 사랑과 관심으로 동참하여 선한 뜻을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락처: (323)734-7177

(박준호 기자)

음식은 쓰레기로, 옷은 장롱 안에 그대로!

IB타임스, 온라인 이사 서비스업체 ‘무빙가’ 조사결과 보도

음식과 옷, 또는 구입한 물건의 낭비와 관련된 문제에 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식)과 실제(현실)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크다. 그 격차를 탐구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음식 낭비와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는 면에서 조사 대상 20개국 중 미국이 1위에 올랐다. 또 입지 않는 옷을 가진 비율에선 미국이 벨기에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온라인 이사 서비스업체 무빙가(Movinga)의 최근 조사에서 미국인은 구입한 식료품의 24%를 쓰레기로 버리고, 이사하면서 가져온 집안 물건의 35%를 사용하지 않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가진 옷의 82%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US Tops Countries In Food And Clothes Wastage, Hoarding: Study).

무빙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이사 추세에 관한 대규모 조사의 일환으로 음식과 옷, 집안 물건의 사용과 관련해 자신의 인식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착각률’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동도 사이에 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와 소비주의, 또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물건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더욱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이유



‘쓰지 않는 물건 쌓아두기’ ‘음식낭비’ 미국이 가장 심해
지난 한해 구입식료품 버리기-24%
집안물건 사용안함-35%
가진 옷 안 입음-82%

를 말해준다.

무빙가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20개국의 가정들에게 음식과 옷, 물건 중에서 구입하는 것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었다. 예를 들어, 지난 12개월 사이에 입지 않는 옷이 얼마나 되는지, 구입한 식료품 중 얼마나 버리는지, 이사할 때 가져온 집안 물건 중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다.

그 다음 그들의 답변을 그 물건이 실제로 사용된 비율과 비교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들이 상황을 어느 정도 착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각 가구의 3가지 분야(음식과 옷, 집안 물건)에 초점을 맞췄다.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상당히 놀라웠다. 미국은 평균 착각률이 22.67%로 5번째로 높았다. 착각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평균 26.33%였고, 가장 낮은 나라는 러시아로 3.33%에 불과했다. 지난해 입지 않은 옷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에선 벨기에가 88%로 1위, 미국이 82%로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인은 지난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가진 옷의 43%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입지 않는 옷의 비율이 82%였다. 착각률이 39%라는 얘기다. 벨기에는 이 분야의 착각률에서도 62%로 1위에 올랐다. 러시아는 입지 않는 옷이 53%, 착각률이 6%로 두 가지 모두에서 가장 비율이 낮았다.



한편 미국인은 구입하는 식료품 중 평균 24%를 음식 쓰레기로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국 중 낭비되는 음식 양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미국인 스스로는 그 비율이 15%라고 추정했다. 착각률이 9%다.

음식 낭비가 가장 적은 나라는 일본과 덴마크로 두 나라 모두 4%를 기록했다. 이 분야의 착각률은 스위스가 13%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가 6%로 가장 낮았다.

이사할 때 가져온 것 중 사용하지 않는 집안 물건의 경우 착각률은 미국이 20%였다. 실제로는 가진 물건의 35%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식하는 비율은 15%였다. 이 분야에서 미국은 착각률에서 2위,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비율에선 1위였다.

일본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 비율이 6%로 가장 낮았다. 이 분야의 착각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과 캐나다로 모두 21%였다.

한편 스웨덴은 착각률이 0%로 나타났다(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12%, 인식하는 비율도 12%였다).

특히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집안 물건의 22%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과 옷, 집안 물건 등은 우리 환경에 상당히 큰 발자국을 남긴다. 전부 서서히 고갈돼 가는 재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패스트패션(최신 추세를 즉시 반영해 빠르게 제작하고 빠르게 유통시키는 의류)이 호황을 보이지만 그런 현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흔히 무시된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패션은 물을 오염시키고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하며 천 낭비를 부추기면서 상당한 양의 탄소와 물, 쓰레기 발자국을 남긴다.

무빙가는 20개국에서 22-60세의 가장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미국에서 1,000명,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2,000명, 스웨덴에서 1,500명, 나머지 국가는 500-800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오차한계는 +/- 5%였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Glory to God'

시온복음선교회
제 32주년 기념 설립 감사예배

노숙자, 빈민구제, 구호 회복을 위한 치료 및 섬김을 위해 32년째 달려온 시온복음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32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라도 꼭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 60:1)



대표 글로리아 김 목사

일시 2018년 10월 6일(토) 오후3시
장소 시온복음선교회
Zion Gospel Missionary Church
3113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9
문의 323-734-7177, 323-734-5587(cel)
E-mail: jeaniejeon@aol.com